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FESTIVAL
BO*M

FESTIVAL
BO*M

페스티벌 봄은 국내외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아우르는 국제다원 예술축제이다.

페스티벌 봄은 새로운 형식과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예술적 비전을 제시하는 국내외 아티스트의 작업을 제작한다.

페스티벌 봄은 국내외 혁신적인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페스티벌 봄은 실험정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신인 발굴에 중점을 둔다.

페스티벌 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특히 아시아 아티스트를 발굴, 소개한다.

페스티벌 봄은 매년 봄, 약 한 달간 서울시 다수의 극장과 미술관 등에서 펼쳐진다.

The Festival Bo:m is an international festival of performing arts and visual arts that is multi-cultural as well as multi-genre.

The Festival Bo:m produces art works and productions by Korean as well as international artists whose works represent an unique vision in their art.

The Festival Bo:m will introduce innovative and avant-garde Korean and international art works.

The Festival Bo:m values the spirit of experimentation and challenge, and places the focus on discovering new artists which are at the heart of the festival.

The Festival Bo:m strives to introduce artists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 especially from Asia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Festival Bo:m will be held for a month in spring every year. This year the festival is scheduled from 27 March to 4 May, and the exhibition and productions will be held at different places in Seoul.

Greetings

다사로운 봄날, 세계 예술가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형식의 현대 공연예술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페스티벌 봄 2010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로 4회 째를 맞은 페스티벌 봄은 현대무용과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한 공연 안에서 그 경계를 허물고 복합적으로 펼쳐지는 실험적 창작 다원예술축제입니다.

이에 따라 아르코미술관에서 발레를 현대적으로 변형한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의 실과 안개를 활용한 독창적인 즉흥 무대 〈덧셈에 대한 역원〉과 관객들이 낸 입장료를 런던 주식시장에 투자해 주가에 따른 관객의 반응을 담아낼 크리스 콘텍의 〈죽은 고양이 반등〉 등 국내외 26개의 공연들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현대 예술의 흐름을 간직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관객들이 여러 예술에 뿌리를 둔 다원예술 작품들을 몸소 경험하며 기존 공연에 대한 생각과 공연 영역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 대학로의 아르코예술극장과 미술관, 마로니에공원, 남산예술센터와 구로아트밸리, 월드컵경기장을 생생히 수놓을 페스티벌 봄 2010이 역동적인 축제로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페스티벌 봄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화창한 봄을 기다리듯 이제는 페스티벌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최근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국제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지역과 장르의 벽을 뛰어 넘는 혁신적 예술 작품을 소개해 온 페스티벌 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페스티벌 봄은 현대예술의 세계적 경향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울의 중요한 페스티벌로 그 브랜드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페스티벌 봄이 끊임없는 진보와 실험을 실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2010년 3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안호상

Contents

포사이스 컴퍼니
덧셈에 대한 역원
6

파브리스 마즐리아·
이오아니스 만다푸니스
P.A.D.
8

크리스 콘덱
죽은 고양이 반등
10

정연두
시네매지션
12

윌리엄 켄트리지
**나는 내가 아니고,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14

마시모 푸를란
우리는 한 팀
16

정금형 × 이정우 × 잭슨홍
기술적 문제
18

제롬 벨
베로니끄 두아노
20

제롬 벨
루초 피르스터
22

마레이스 블로뉴
해부학 수업
24

서현석·조전환
||||□
26

세들라베 무용단·알랭 플라텔
**문맥 이탈—
피나 바우쉬를 위하여**
28

이나현·서동욱
어떤 모순
30

캐서린 설리번·션 그리핀·
극단 여행자
영매
32

캐서린 설리번·션 그리핀
치텐덴스
34

이영준
조용한 글쓰기
36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분미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
38

로제르 베르나트
공공영역
40

자비에 르 루와
불의 제전
42

남화연
오퍼레이셔널 플레이
44

와엘 샤키
텔레마치 시리즈
46

니콜라스 게이어할테
7915 Km
48

홍성민
줄리엣
50

앨런 벌리너
가장 달콤한 소리
52

슬기와 민
점점 불
54

SMSM
현재 위치 (춤으로)
56

부대 행사
58

The Forsythe Company
Additive Inverse
6

Fabrice Mazliah
& Ioannis Mandafounis
P.A.D.
8

Chris Kondek
Dead Cat Bounce
10

Yeondoo Jung
Cinemagician
12

William Kentridge
**I Am Not Me,
the Horse Is Not Mine**
14

Massimo Furlan
We are the Team
16

Geumhyung Jeong ×
Chungwoo Lee ×
Jackson Hong
Technical Problem
18

Jérôme Bel
Veronique Doisneau
20

Jérôme Bel
Lutz Förster
22

Marijs Boulogne
The Anatomy Lesson
24

Hyun-Suk Seo
& Jeonhwan Cho
||||□
26

Les Ballets C de la B
& Alain Platel
Out of Context—for Pina
28

Na-hyun Lee
& Dong-uk Seo
A Certain Contradiction
30

Catherine Sullivan,
Sean Griffin & Yohangza
Ouija!
32

Catherine Sullivan
& Sean Griffin
The Chittendens
34

Lee Young June
Silent Writing
36

Apichatpong
Weerasethakul
**A Letter to
Uncle Boonmee**
38

Roger Bernat
Domini Públic
40

Xavier Le Roy
Le Sacre du Printemps
42

Hwayeon Nam
Operational Play
44

Wael Shawky
Télématch Series
46

Nikolaus Geyrhalter
7915 Km
48

Sungmin Hong
Juliettttt
50

Alan Berliner
The Sweetest Sound
52

Sulki & Min
Springmore
54

SMSM
**You Are Here
(In the Form of Dance)**
56

Events
58

The Forsythe Company

Additive Inverse

포사이스 컴퍼니
덧셈에 대한 역원

발레를 고전 레퍼토리로부터 자유로운 새 지평으로 이끈 선각적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가 무대를 벗어나 미술관으로 가는 이유는 공간과 신체가 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대한 탐구를 관객이 더욱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솔로 무용수를 위한 '설치 무용' 작품 '덧셈에 대한 역원'은 동작을 위한 매우 독창적인 즉흥 악보에 의해 진행된다. 바로 실과 안개다. 무형과 유형, 선형과 비선형, 사유와 물질 등 서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소통될 수 없는 요소들은 어떤 깨지기 쉬운 질서를 함께 이룰 수 있을까?

“부유하는 유령 같은 제스처는 언어와 환경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매혹을 부른다. 그는 곧 연극의 근원적인 목적에 상응한다. 즉, 언어의 산술에 즉각적인 물성을 부여하는 것.”

As an American working internationally for the last thirty years, William Forsythe is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foremost choreographers. His work is celebrated for reorienting the practice of ballet from its identification with classical repertoire into a dynamic 21st-century art form.

Composed of thread and fog, the material work is a score for a delicately sustained solo performance. This installation by William Forsythe is made in collaboration with Philip Bußmann, features a soundtrack by Thom Willems and is performed at the Arko Art Center by Alessio Silvestrin.

“The floating, spectral gestures of *Additive Inverse* summon our primary fascination with language and illusion. This is a correspondence with one of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theater: to lend a calculation of language the quality of spontaneous materialization.”

6



Photo © Julian Gabriel Richter

Choreographic object
William Forsythe in collaboration with Philip Bußmann
Production
The Forsythe Company, 21_21 Design Sight (Tokyo)
Music
Thom Willems
Video
Philip Bußmann
Production
Julian Gabriel Richter
Performance by
Alessio Silvestrin

The Forsythe Company is supported by the city of Dresden and the state of Saxony as well as the city of Frankfurt am Main and the state of Hesse. The Forsythe Company is Company-in-Residence of both the Festspielhaus Hellerau in Dresden and the Bockenheimer Depot in Frankfurt am Main.

With special thanks to Ms. Susanne Klatten for supporting the Forsythe Company.

Co-organized by
Arko Art Center

7

Fabrice Mazliah & Ioannis Mandafounis

P.A.D.

파브리스 마즐리아,
이오아니스 만다푸니스
P.A.D.

집중 우리 혹은 격투장을 연상시키는 사각의 장. 이를 둘러싼 관객의 높은 시선들. 그 안에서 두 신체가 기형학적이고도 심미적인 관계를 발생시킨다. 서로를 방해하고, 굴절하고, 은폐한다. 대립도 애정도 아닌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은 상대의 의지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조력자들인가? 좁힐 수 없는 간극을 유지한 채 우주를 부유하는 독립체들인가? 소년 시절 친구인 두 무용수 간의 거리감과 친밀감은 시시각각 변한다. 그들과 관객 사이가 그러하듯이. 아니,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아니, 모든 게임이 그러하듯이.

이 작품은 시각과 언어에 대한 질문을 과감하고도 다소곳이 던지는 시험대다. 윌리엄 포사이스의 촉망 받는 무용수다운 깊은 성찰과 과감한 젊은 에너지가 충돌하는 경기장이다.

우리는 상대에게 무엇을 주거나 보여 주려고 할까? 상대로부터 무엇을 취하거나 보려고 할까? '의도'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파격과 관습을 중첩시키는 사각 안에서 두 사람 간의 반응과 해석은 일치와 부조화 사이를 오가고, 이러한 소통상의 진동은 곧 관객의 체험으로 전이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성찰해 보라는 과묵한 제안과 함께.

A piece with which to test sight... Besides being current members of The Forsythe Company, Fabrice Mazliah and Ioannis Mandafounis have known each other since adolescence. Drawing on this long-lasting complicity, they have created a most subtle choreographic study of the question of intimacy and the gaze of the other. Seated behind a railing on the four sides of the stage, the spectators look down on the performers, in an experiment on closeness that destabilizes, unsettles and distorts the perception of bodies caught in an ambiguous relationship. What are we willing to give (or to show) of ourselves? And what is it we ask (to see) of the other? Where does one draw the line between individuals? Centering on the unstable distance and proximity between the dancers themselves, but also between them and the audience, this work invites us to question the gap between notions of perception, intention and interpretation.

8



Photo © Constance Neuenschwander

Conceived-staged-performed by
Fabrice Mazliah &
Ioannis Mandafounis
Technical director & stage
engineer
Max Schubert

P.A.D. was commissioned by the Athens Festival 2007, performed as well at the Kunstlerhaus Mousonturm, Kunsthalle Baden Baden, Kunstenfestivaldesarts, Rencontres Internationales de Seine-Saint-Denis.

Friends
GOETHE-INSTITUT

9

Chris Kondek

Dead Cat Bounce

크리스 콘덱
죽은 고양이 반등

당신은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익의 달콤함을 맛보고 싶다면, 이 연극을 보시라. <죽은 고양이 반등>은 주식을 '다루는' 연극이다. '다루는' 방식은 온라인 투자고, 투자 자금은 당신이 낸 관람료다. 주식 시장의 실시간 '드라마'가 곧 이 연극의 내용이 된다. 손익의 변화가 곧 극의 흐름이다.

폭락하는 주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죽은 고양이가 미세하게 튀어 오르듯'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을 일컫는 주식 용어가 이 '주식 시장 퍼포먼스'의 제목이다.

아무리 지루한 연극이라도 만약 당신이 실제로 투자한 돈이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무대에 시각화된다면, 더 이상의 '몰입'과 '동요'는 없을 것이다. 이 연극은 욕망, 권력, 두려움 등 연극의 고전적 요소들을 두루 갖췄다. 돈, 돈, 돈이 개입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자본주의에서 돈이 주는 쾌락과 비극은 무궁무진하다. 자본은 곧 언어다. 연극도 보고 돈도 벌어 보시라.

Have you ever tried speculation in stock? *Dead Cat Bounce* offers a unique chance to experience the thrill of stock trading live in the theater. In each performance the box office of that very night is taken and invested for 90 minutes via an E-brokerage account at the London Stock Exchange.

Dead Cat Bounce is a live performance that totally relies on and works with real time information. The same charts and graphs that professional traders are using surround us on stage. While mixing video, music, stories and internet surfaces, the rhythm of the show is given by the fluctuation of prices on the stock exchange that very evening. The performance of the stocks, the drama of the market defines the dramaturgy on stage.

초대권으로 입장하는 관객은 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액이 절대 환원되지 않습니다.



Photo © Klaus Weddig

Director, video

Chris Kondek

Dramaturgy

Christiane Kuhl, Jan Linders

Performers

Julie Bougard, Chris Kondek, Christiane Kuhl, Victor Morales, Alexander Schroder

Composer, musician

Hannes Strobl

Set design

Herbert J. Klitzsch

Technical director

Marc Stephan

Co-Production

Productiehuis Rotterdam (Rotterdamse Schouwburg), Hebbel am Ufer (Berlin), Kunsterhaus Mousonturm (Frankfurt)

Subsidized by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ltur, Fonds Darstellende Kunst e.V. (Bonn)

Korean Staff

Performers

Minsung Seo, Soyeon Park

Video

Tong Yang Investment Bank

MunHyawn Park,

SisaN Economy Dept.

Jongtae Lee

Friends

GOETHE-INSTITU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09 Monsoon Project>

Yeondoo Jung Cinemagician

정연두
시네매지션

정연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여 줄 극장 작업 〈시네매지션〉은 마술, 영화 그리고 영화 찍는 행위에 대한 총체적 퍼포먼스이다.

실제 마술사인 이은결이 진행하는 무대 위 마술 쇼는 그 순간과 전경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경 그리고 주변부 상황까지 모두 영상으로 찍혀 무대 앞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보인다. 관객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무대 위 광경과 카메라에 포착된 스크린 영상은 과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또한 이 다차원적 퍼포먼스를 통해 관객 앞에서 벌어지는 마술 쇼의 긴장은 또 다른 감각과 감정으로 어떻게 전이되고 충돌할 것인가?

19세기 프랑스 영화감독인 조르주 멜리에스가 환영(illusion), 꿈을 위해 마술과 영화를 결합한 것에 영감을 받은 이 〈시네매지션〉은 영상과 마술의 새로운 결합으로 진실과 허구의 관계를 심각하지 않고 유쾌하게 풀어 간다.

Yeondoo Jung's new theater piece, *Cinemagician*, aims to recreate the tensions between the magician and audience that arise from watching the unfolding of an unknown event or trick. Inspired by the nineteenth-century French filmmaker George Méliès, whose experiments as a magician and cabaret illusionist led him to play with special film effects such as the "stop trick" (stopping filming, substituting something in front of the camera for something else, and then resuming filming), multiple exposures, dissolves, and hand-painting colors on film, *Cinemagician* will present a live "happening" juxtaposed with a projected one. As a live magician (South Korean celebrity Eungyeol Lee) manually constructs the setting of the stage that he is standing on, a camera will simultaneously shoot the stage, and project its feed on a screen hanging above. As the performance progresses, the version shown on the screen will drift from a strict live feed to one transformed by illusions only possible in cinema, leaving the audience to oscillate between the "suspension of disbelief" and a paradoxically ravishing spectacle.

12



Photo © Lee jong chul

Cast
Eungyeol Lee (Magician),
Kyungsoo Byun (ShadowMan)
Director of photography
Daesun Kim
Theatrical adviser
Surya
Theater light
Sunju Jung
Props
Jooho Yoo, Hyungil Lee,
Jungki Beak, Daum Kim,
Honghee Kim, Sanghun Park
Costume
Songyi Han
Architect
Joonha Hwang
Editing
Daum Kim
Draughtsmen
Jimin Chae, Woosung Lee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3

William Kentridge

I Am Not Me, the Horse Is Not Mine

윌리엄 켄트리지
나는 내가 아니고, 그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다양한 매체에 걸친 코믹하고도 기묘한 작품 세계로 오늘날 미술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윌리엄 켄트리지의 이 작품의 영감으로 삼은 원전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코〉이다. 윌리엄 켄트리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제작 의뢰를 받았고 그 제작 과정을 걸쳐 퍼포먼스와 비디오 인스톨레이션으로 발전시켰다.

오페라의 원작인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에서 주인공 코발료프는 이 발사가 자른 자신의 코가 독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발견한다. 여덟 개의 영화 단상들로 이루어진 켄트리지의 렉처와 다매체 설치 작품은 기발한 컷 아웃, 프로젝션, 사운드스케이프를 통해 상상과 감각을 확장한다.

“나는 내가 아니고,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유죄를 부정하는 러시아식 표현으로, 고골의 괴팍한 신체 모티브는 혁명 후 러시아, 에티오피아와 나미비아에서의 식민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 등 다양한 역사적 문맥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폭력으로 확장된다. 애니메이션, 목판화, 판화, 무대 디자인, 인형극, 콜라주, 내레이션 등을 복합적으로 조합하는 켄트리지의 현란한 언어는 역사와 상상을 입체적으로 횡단하며 진지하고도 유머 넘치게 모더니즘의 뿌리와 경계를 추적한다.

I Am Not Me, the Horse Is Not Mine takes as starting point Nikolai Gogol's absurdist short story *The Nose* (1837), and emerges as part of William Kentridge's process of developing his production of Dimitri Shostakovich's opera *The Nose* (1930), commissioned for the Metropolitan Opera in New York in 2010. The work stems from an ongoing interest in the roots and trajectory of modernism: a mixture of the absurd, the self-reflective (and the "self-divided") and the forms of fragmentation that one associates with modernism, its crushing in Russia in the 1930s, and the long-term trajectory of the terrors of hierarchy. The lecture combines live performance with projection, and is about 45 minutes in duration.

Directing, animation, photography & performance
William Kentridge
Editing
Catherine Meyburgh
Composer
Philip Miller
Stage direction
Sue Pam-Grant
Animation assistants
Gerhard Marx, Naomi van Niekerk, Catherine Walker

Music
Galop
Music composition by Philip Miller
Ngilahlekelelwe Khala Lami
Musical arrangement by Philip Miller, music and lyrics by Richard Siluma & Thulani Manana
Choir
Thulani Manana & Abanikazi Bomkhalanga
The Galop Band
Trombone
Dan Selsick
Tuba
Billy Middleton
Trumpet
Adam Howard
Castrol tin-can guitar
Ntkozo Zunga
Percussion
Bethuel Mbonani
Vocal leader
Thulani Manaka



Photo © William Kentridge

Lecture video operator & translator
Heo Myoung-jin
Dancing figure
Thato Motlhaolwa
Participants in workshop for *The Nose* (Johannesburg, January 2008)
Panayota Athanasiou, Zola Hashatsi, Rachel Jacobs, Alex-Ann Keppie, Mbovu Malinga, Wez-Lee Masilo Makgamatha, Thato Mathole, Onthatile Matshidiso, Hlomohang Mothetho, Thato Motlhaolwa, Miranda Ndou, Lesego Ngwato, Mzamo Nondlwana, Roberto Manuel Pombo, Eve Rakow, Motlalentwa Sehloho, Rabeka Silinda, Nqaba Thela, Claudine Ullman, Nick Welch
Co-organized by
Arko Art Center

Massimo Furlan

We Are the Team

마시모 푸를란
우리는 한 팀

사적 기억은 어떤 순간 공적 기억이 되는가? 장소는 기억과 어떻게 상호 작용할까? 개인의 정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는가?

마시모 푸를란에게, 축구는 전쟁이 아니라 연극이다. <우리는 한 팀>의 드라마투르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다. 이 경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기는 스포츠 이상의 의미로 남는다는 생각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경기에는 비극과 희망, 영예와 폭력이 따르지만, 그 중 어떤 경기는 그야말로 모두가 벅찬 가슴으로 기억하는 사회적 사건이자 역사의 '고전'이 된다.

이 '고전'에서 푸를란은 안정환 역을 맡는다. 경기는, 아니 공연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대로 116분이 넘게 진행되지만, 선수는, 아니 연기자는 혼자뿐이다. 아레나는 푸르지만 텅 비었고, 골은 나지만 공은 없다. 스피커에서는 그날의 함성이 터져 나오지만, 관중석은 쓸쓸하다. 푸를란만이 황량한 유령의 공간에서 외로움에 투항할 뿐이다. 그는 불가능에 직면하는 고전적 영웅 헤라클레스에 다른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존재론적 고독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함성에 휩쓸리며 어느새 그들의 놀이에 동참하게 된다. 기억과 부재의 묘한 간극을 오가는 사이, 우리는 관객이 아닌 연기자로 변신해 있다. 스스로의 기억에 묻힌 '관중'을 연기하는 '퍼포머'로 말이다. 모두 연기자인 우리는 결국 '한 팀'이 된다. '역사'라는 경기를 뛰는 한 팀.

Performer
Massimo Furlan
Director
Massimo Furlan
Technique
Daniel Demont
Photo
Pierre Nydegger
Administrator
Laura Gamboni

Touring
Tutu Production: Véronique Maréchal, Simone Toendury, Justine Beaujouan
Supported by
Loterie romande, Etat de Vaud, Pro Helvetia—Fondation Suisse pour la culture, Ville de Lausanne, Banque Cantonale Vaudoise
Co-organized by
Hi-Seoul Festival
Friends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di Seoul, AMBASCIATA D'ITALIA

16

18th June 2002: An unforgettable date for Korean football, a fantastic 116-minute long history.

We enter a huge and empty stadium. At its center, a big green rectangle. An epic memory. We can see only one player on the field, the Korean no.19. There is no ball, but all the gestures, runs, penalty shoots and falls are there. In front of our eyes, it is not the real player, but one performer who, in a mind-blowing effort, is re-playing simultaneously, with an incredible precision, the whole South Korea-Italy match of the Football World Cup 2002.

We can hear the murmur of the crowd coming out from the stadium speakers and from the portable radios that we have been given at the entrance of the stadium. We can also hear the live commentary of a famous sport journalist who is describing what is happening on the field. He is telling us a story, an incredible story, made of unexpected turns of events, surprises, pain and joy. A story with a perfect dramaturgy. It is funny and moving at the same time.

The spectators are also replaying the game. They are slowly turning themselves into supporters. Whistling, howling and cheering. All the supporters' choreographies are instinctively being reinvented along with the story. In the end, there are no more real spectators in this re-enactment. Each of them has become a performer. An absurd celebration.

In this performance, Massimo Furlan is calling the collective memory of a whole country, embodied by a mythic football match. Gathered around this strange object, each spectator is finding his own place. Each of them can indeed tell with precision the experience he had on this night in 2002. It is about intimate memory, our little history. We are all connected to moments of history. This project questions in a funny and spectacular way the mechanisms that govern our link to collective memory.



Photo © Pierre Nydegger

17

Geumhyung Jeong × Chungwoo Lee × Jackson Hong

Technical Problem

정금형 × 이정우 × 잭슨홍
기술적 문제

1. 무대 예술가 정금형은 진공 청소기 따위의 사물과 제 몸을 마주 놓은 채, 애욕(愛慾)의 몸짓을 하나하나 연구·개발해 왔다.

2. 디자이너 잭슨홍은 사물의 편에서 비평적 디자인을 시도하며 디자인 방법론의 다양한 층위를 실험해 왔다.

3. 2009년 12월, 페스티벌 봄의 디렉터 김성희는, 평론가 이정우의 핼핑(pimping) 제안에 따라, 정금형과 잭슨홍의 피쳐링(featuring) 프로젝트를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극장 퍼포먼스와 공업 디자인의 매시업(mash-up) 실험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4. 잭슨홍이 정금형의 작업 방식을 연구해 그의 사물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조형 질서를 제안하면, 정금형은 그 사물들을 통해 새로운 육체 언어를 개발할 것이고, 이어지는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안무가는 각각의 방식으로 서로의 결과에 대응할 테다.

5. 극장 퍼포먼스와 공업 디자인이라는 이질적 두 세계의 충돌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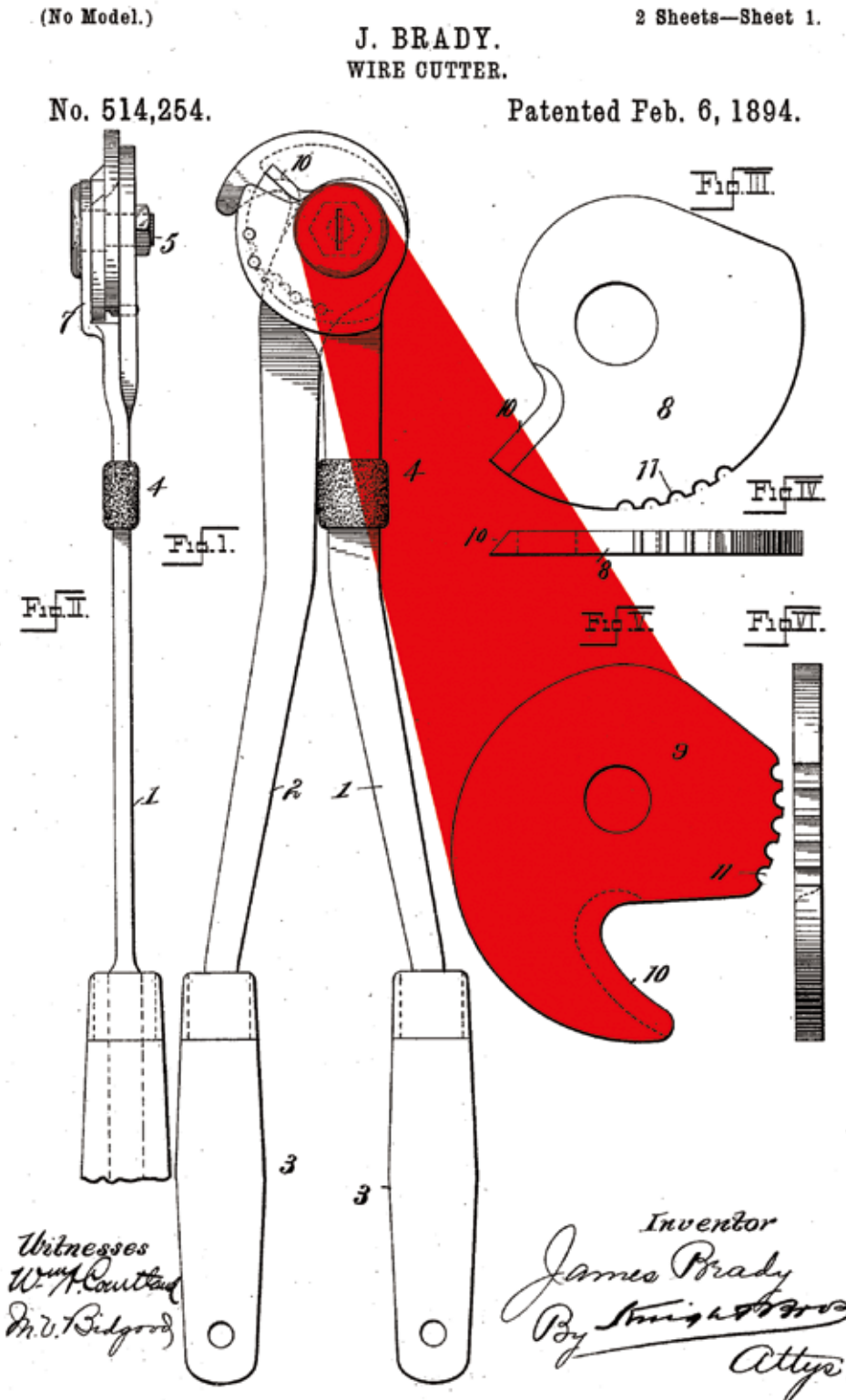
1. Theatre artist Geumhyung Jeong has developed awkward bodily movements of the erotics, presenting her own body with props like a vacuum cleaner.

2. Designer Jackson Hong has conducted serial experiments of the modern design methodology, practicing "critical design" with object-oriented attitude.

3. December 2009, Festival Bo:m decided to host the featuring project of Geumhyung Jeong and Jackson Hong, as the suggestion by art critic Chungwoo Lee.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an aesthetical mashup of theatre performance and industrial design.

4. The designer may suggest a plastic order studying the performer's convention, then the performer may extract her movements out of the newly designed props. And, in the phase of post production, they will be able to take their final chances to cope with the resulted situation.

5. This is a sort of staged crash test of two different worlds. What could we get in the end?



Drawing © Jackson Hong

Performance
Geumhyung Jeong
Design
Jackson Hong
Pimping
Chungwoo Lee
Support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Jérôme Bel

Veronique Doisneau

제롬 벨
베로니끄 두아노

오늘날 가장 변혁적인 아방가르드 실험의 장은 무용이다. 무용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신하는 제롬 벨이 최근작들에서 탐구하는 대상은 무대라는 특수한 공간성, 그를 통해 설정되는 관객과 무용수 간의 계약 관계, 그리고 그것들의 역사적인 문맥이다.

특정한 무용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벨의 최근 연작들의 출발점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브리지트 르페브르 단장의 요청이었다. 이에 대해 벨은 무용수 중 한 명에 대한 다큐멘터리 성격의 작품을 제작하겠다고 했다. 당시 은퇴를 앞두고 있던 베로니끄 두아노가 그 '주인공'이다. 파리 오페라에서는 프리마돈나가 아닌, 군무를 위한 많은 무용수들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벨의 작품에서는 드디어 모든 관심의 유일한 초점이 된다.

본인의 이름이 곧 제목인 이 작품에서 두아노는 무대에 홀로 등장, 군무 발레리나로서의 자신의 커리어를 회상한다. 무대 외곽에서 맴도는 군무 동작은 솔로의 모티브로 변형된다. 이 자전적 다큐멘터리이자 무용 작품이기도 한 영화는 파리 '팔레 가르니에'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기록한 것이다.

Invited to make a piece for the ballet of the Paris Opera by her director Brigitte Lefèvre, Jérôme Bel wanted to stage a kind of theatrical documentary on the work of one of the dancers of the ballet: Véronique Doisneau. The dancer, closed to the retirement age, alone on stage, retrospectively and subjectively considers her own career as ballerina inside this institution.

This film was shot during the last performance of the piece on the stage of the Palais Garnier. It has been produced thanks to Telmondis and the Paris Opéra, and co-realised by Pierre Dupouey and Jérôme Bel.

20

© France 2005
Opéra national de Paris, Telmondis
Conception
Jerome Bel
Co-production
Opéra national de Paris, Telmondis
In association with
France 2
With the participation of
Mezzo,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Associate producers
Denis Morliere, Antoine Perset
Directors
Jerome Bel, Pierre Dupouey
Language
French with English subtitles
With
Veronique Doisneau, Celine Talon, Sujets of the Corps de Ballet of the Paris National Opera
Extracts of ballets borrowed from
Jean Coralli & Jules Perrot (*Giselle*), Merce Cunningham (*Points in Space*), Mats Ek (*Giselle*), Rudolf Noureev (Marius Petipa, *La Bayadère* / Marius Petipa & Lev Ivanov, *Le Lac des cygnes*)
Special thanks to
Merce Cunningham, Mats Ek, the Rudolf Noureev Foundation
Music from
Piotr Illyitch Tchaïkovski, *Swan Lake* (Orchestra of the Paris National Opera, violin solo Frederic Laroque, directed by Vello Pähn), Adolphe Adam, *Giselle* (Orchestra of the Monte Carlo Opera, directed by Richard Bonyngue, Decca Record Company Ltd, with the kind authorization of Universal Music
Recorded at
Palais Garnier, Opéra national de Paris

Opéra national de Paris

Director
Gerard Mortier
Director of dance
Brigitte Lefevre
Artistic staff coordinator
Hedwig Dewitte
Technical director
Stefano Pace
Assistant technical director
Christian Martin
Audio-visual director
Pierre Moitron
Production manager
Caroline Ludot
Production assistant
Clive Thomas
Stage manager
Laurent Grard
Ballet administrator
Renaud Fauviau
Assistant ballet administrator
Yaelle Beuzelin, Virginia Gris
Sound
Bruno Puig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technical teams of the Paris Opera
Video production manager
Olivier Pajot

Production assistant

Magali Ailloud
Video assistants
Yves Lepoivre, Adrien Perrault, Cedric Weber
Cameras
Richard Devoucoux, Richard Montrobert, Pierre Dupouey
Sound engineers
Bastien Brionne, Christian Vignal
Make-up
Catherine Lhuerre
Edited by
Catherine Dubois, Emmanuelle Dupont
Sound mixers
Jean-Claude Branger, Cecile Jolivel
Production administrator
Isabelle Merlin
Production assistant
Nathalie Casimiro
Post production assistant
Annick Waterkeyn
Assistant director
Jean-Christophe Ponties
Director of production
Emma Enjalbert

Friends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CULTURESFRANCE, Centre Culturel Français, FilmForum



Photo © Icare

21

Jérôme Bel

Lutz Förster

제롬 벨
루츠 피르스터

“2008년 피나 바우쉬는 내가 연출, 제작한 <베로니끄 두아노>를 부퍼탈에서 열리는 자신의 페스티벌에 초청했다. <베로니끄 두아노>는 파리 오페라의 베로니끄 두아노가 군무 발레리나로서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말과 동작으로 풀어내는 2004년의 솔로 작품이었고, 아쉽게도 주인공 베로니끄는 42세의 나이로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부퍼탈에서의 공연은 불가능했다. 나는 대신 피나 바우쉬의 무용수와 같은 종류의 작품을 새롭게 해보겠다고 했고, 피나 바우쉬도 관심을 보였다. 얼마 후, 탄츠테아터의 가장 열성적인 무용수 루츠 피르스터와 친분이 있는 프로듀서이자 드라마투르그 베티나 마우쉬가 만남을 주선했고,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다.”

“In 2008, I was invited by Pina Bausch to come and perform *Véronique Doisneau* in her festival in Wuppertal. This piece was a solo for Paris Opera Ballet dancer Véronique Doisneau. In this 2004 production, Véronique Doisneau was retrospectively describing her work as a ‘corps de ballet’ dancer in the Paris Opéra, since she was going to retire that same year at age 42.

I answered Pina Bausch that unfortunately Véronique Doisneau was now retired and that she couldn’t perform anymore. But I offered to develop the same kind of work with one of her dancers. Pina Bausch said that she was interested by the project.

Some time later, I told Bettina Masuch, German producer and dramaturg, about this project and she said that she knew Lutz Förster personally, one of the most devoted members of the Tanztheater Wuppertal, and that she could put us in contact.

I knew Lutz Förster because I had seen him perform many times in Pina Bausch’s early works. After Lutz Förster had watched the *Véronique Doisneau* film, we both agreed to try to make a solo titled *Lutz Förster* in which he would talk about his own career as a dancer.”

—Jérôme Bel, January 2009, Xalapa, Mexico

22

Concept
Jerome Bel
By and with
Lutz Förster

With extracts of pieces by
Pina Bausch (*Kontakthof*, 1980—*Ein Stück von Pina Bausch*, *Nelken*, *Ahnen*, *Für die Kinder von gestern*, *heute und morgen*), José Limón (*The Moor’s Pavane*)

In collaboration with
Bettina Masuch
Stage manager
Thomas Wacker



Photo © Anna Van Kooij

Special thanks to
Pina Bausch, Carla Maxwell—Limón Dance Company, Robert Wilson, Caetano Veloso

Jérôme Bel and Lutz Förster also wish thanks to
Facultad de Danza—Universidad Veracruzana (Xalapa, Mexico), Folkwang Hochschule Essen, Centre National de la Danse (Paris), Ménagerie de Verre—Studiolabs (Paris), Sabine Hesseling, Franko Schmidt

Production
Springdance (Utrecht), R.B. Jérôme Bel (Paris), in collaboration with Landshoff Entertainment (Hamburg)

Supported by
Kulturstiftung des Bundes

Language

English

Production manager

Sandro Grando

Subsidies

R.B. Jérôme Bel is supported by the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d’Île-de-France, French Ministry for Culture and Communication, and by Cultures France, Frenc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for its international tours.

Friends

Namsan Arts Center,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CULTURESFRANCE, Centre Culturel Français

23

Marijs Boulogne

The Anatomy Lesson

마레이스 볼로뉴
해부학 수업

마레이스 볼로뉴가 자신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택한 매체는 실, 섬유, 염료다. <해부학 수업>은 살기 위해 (그리고 죽어서도) 의류, 침구, 용단, 담요 등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서 섬유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 바치는 한 편의 시다. 볼로뉴에 있어서, 자수는 외상에 대한 영구적인 보상이자, 부패에 대한 치유이다.

이 섬뚝하면서도 아름다운 '법의학적 동화'의 주인공은 섬유로 만든 인조 아기이다. 치밀한 해부 과정은 창조의 주체인 여성의 신체가 가진 신비로움을 파헤치는 동시에 성립시킨다. 죽음과 탄생이 맺는 연속의 매듭,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자수처럼 엮이는 과정을 통해, 볼로뉴는 '경계'에 대한 즉물적이고도 정신적인 탐구를 진지하게 펼쳐 나간다. <해부학 수업>은 신체의 숭고함을 탐색하는 '해부학'이자, 자유와 아름다움을 설파하는 '수업'이다.

With poor materials—threads, fibres, colors—Marijs Boulogne creates dream worlds that escape the laws of profit and capital. Her performance work is an ode to innumerable dressers/artists in a world that is in need of clothing, a bed, a carpet, blankets to be born in and to die in.

Embroidery as an eternal work of reparation, as a remedy against that what decays.

The Anatomy Lesson is the theater performance of the traject "Excavations," an embroidery work of Eros and Thanatos, the result of an intense physical and mental exploration of boundaries.

The Anatomy Lesson embroiders on these themes. For this forensic fairy tale Marijs Boulogne created an artificial baby.

An interactive lesson on the female body becomes a mythical cycle of dying–birth–re-dying.

The Anatomy Lesson is a search for the divine in a body. A lesson in beauty and liberation.

Director, writer, embroidery & performer

Marijs Boulogne

Multimedia project

Video

Julia Clever-Germany

Drawing

Alice Lorenzi- Belgium, endoscope STORZ (Eugeen Steurs, Belgium)

Supported by

Endoscope STORZ (Eugeen Steurs Belgium), The Flemish Culture of Belgium



Drawing © Marijs Boulogne

Thanks to the Flemish Community and Eugeen Steurs for STORZ ENDOSCOPE.

Hyun-Suk Seo & Jeonhwan Cho



서현석, 조전환
||||□

수많은 동화들은 깊고 깊은 숲 속으로 우리를 유인한다. 나무들의 심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장소에 다다른다. '집'이다. 집은 삶의 시작이자 구조다. 꿈의 공장, 혹은 언어의 원형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말대로, "예술의 시작은 '살'이 아니라 '집'이다!"

벌거벗은 연극 <||||□>은 기억의 숲 속의 집에 이르기 위한 여정이다. 하지만 숲은 방대하고 혼탁하다. 무대 위에는 집 대신, 그곳의 언저리에 흩어져 있는 무구하고 무수한 조각들이 혼재한다. 완전히 이르지 못하는 단상들. 원전을 망각한 인용구들. 시제 없는 시간의 파편들.

아늑하고도 아득한 풍경 속에서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자 이방인이다. 소외와 몰입은 구분되지 않는다. 열정과 지루함은 중복된다.

어중간함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명료함이 있다면, 무대라는 공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무대의 환영이 깨지는 것은 삶의 헛된 약속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다.

삶의 헛된 약속이 허물어지면, 어쩌면 보다 친밀한 꿈이 열릴 지도 모른다..

Production Assistants
Mo Hyun-Shin, Cho Young Jik
Stage Director
Lee Dong-Sun
Lighting Director
Shin Ho
Sound Director
Do Myeong-Ho
House Manager
Kwon Seon-Hee

House
Cho Jeonhwan
Story
Seo Hyun-Suk
Invisible facilitator
Kim NamSoo
Cast
Kim Ye-Eun, Alice Kim,
Kim Young-Jin, Cho Jeonhwan,
Shin Kang-Su, Kim NamSoo,
Kim Seung-Jik, Min Hong-Ji,
Park Min-Shik, Lee Young-Un,
Ahn Chi-Wook, Chung Woo-Seok,
Chung Yu-Chul, Park Ki-Suk,
Park Kang Arum

Constructing a story is like building a house. Or, is it?

The stage becomes a foundation upon which Carpenter Cho constructs a "one-story" structure. Cornerstones establish the parameters. Pillars and beams come together to create harmony and conflicts. The hammering sound is offered as pounding punchlines, the smell of sawdust tear-jerkers. "Art," after all, "begins not with the flesh but with the house," as Deleuze and Guattari put it in not-so-fleshy words.

||||□ (disassembled vowels and a consonant from the Korean alphabet, phonetically corresponding to "I I I I M") is but a loose set of fragments that make up a story, or many stories, but don't necessarily amount to a "drama." This lazy and naked play keeps the audience in the distance of the balcony seats, letting them wander about in the forest of untied thoughts and memories within which they might be able to come to a cozy house, as do many fairy tale characters.

With some help of a dubious teletubbie and other passionless colleagues, the carpenter finally manages to bring to a shape something for all of us to dwell in: a simple question about the complex territory called "stage." Willing audience members are invited to be "immersed" in the open structure. ||||□ is a cosy piece of "auto-constructive" process art with safe bends.



Photo © Jeonhwan Cho

Thanks to
Oh Se Hyung, Kwon Mi-Kyung,
Kim Je-Min, No Young-Shim,
Lee Jae-Ho, Ahn Eun-Me, WHEEL
Friend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09 Monsoon project)
Support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Les Ballets C de la B & Alain Platel Out of Context—for Pina

세들라베 무용단, 알랭 플라텔
문맥 이탈 — 피나 바우쉬를 위하여

정신 치료 교육자 출신이자 세들라베 무용단(1984-)의 창립자인 알랭 플라텔은 신체를 정신적 기재로 해석함으로써 무용의 근원에 접근한다. 최근작들은 개인성을 초월하는 정서적 에너지를 포용하는 무용 형식을 개발하는 목적을 지향한다.

“최근 내가 작품에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히스테리를 겪는 신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히스테리’란, ‘질병’이 아니라 ‘삶에 대한 과민한 감수성의 표현’이다. 언어가 우리의 가장 내면 깊숙한 감정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체가 나선다. 무용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러한 기능에 충실했다. 과잉된 감정을 신체 언어로 전환하는 가능 말이다. ‘안무(choreography)’라는 단어의 어원도 ‘신경계 질환’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 ‘chorea’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러한 질환의 증상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통제할 수 없는, ‘히스테리’적 신체 동작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흥분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은 무용수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서적, 형식적 ‘문맥’을 최대한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무대는 긴급 상황과 엑스터시의 장이다.” — 알랭 플라텔

“Nothing up their sleeves, and nothing in their pockets. With *Out of Context*, director Alain Platel aims to return to the fundamentals of dance. Starting from a belief in the human body as emotional tool, as carrier of memories, as raw material for living fine art. While Platel has flirted with the boundaries of opera over the past years, with for example *Vsprs* or *Pitié!*, *Out of Context* is not a music-driven piece, and also has no set or costumes other than those the dancers can fit in their suitcases. It is however no crisis piece. It is in self-limitation that a master first shows himself. The mastery of the dancers with which Platel embarks on this adventure is indisputable. Each and every one is an impressive figure with whom Platel has travelled far over the years. The show mainly asks questions to them, within the constructive dialogue born out of obsession that takes place between director and dancers. The result may well be quite surprising (intimate, inviting, captivating) and much less ‘out of context’ than the title would suggest.”

—Hildegard De Vuyst, dramaturg

28

Danced and created by
Elie Tass, Emile Josse, Hyo Seung Ye, Kaori Ito, Mathieu Desseigne
Ravel, Melanie Lomoff, Romeu Runa, Rosalba Torres Guerrero, Ross Mc Cormack
Concept and direction
Alain Platel
Dramaturgy
Hildegard De Vuyst
Direction assistance
Sara Vanderieck
Costume design
Dorine Demuyck
Light design
Carlo Bourguignon
Sound design & electronic music
Sam Serruys



Photo © Chris Van der Burght

Sound engineer
Bart Uyttersprot
Photography
Chris Van der Burght
Production management
Fien Ysebie
Tour management
Sara Vanderieck
Production
Les Ballets C de la B
Co-production
Theatre de la (Paris), Le Grand Théâtre de Luxembourg, TorinoDanza, Sadler's Wells (London), Stadsschouwburg Groningen, Tanzkongress 2009 / Kulturstiftung des Bundes, Kaaitheater (Brussel), Wiener Festwochen

With thanks to
Timur Magomedgadzhjeyev, Farah Saleh, Quan Bui Ngoc, Juliana Neves, Fabrizio Cassol, Isnel Da Silveira, Berlinde De Bruyckere, Toneelgroep Ceremonia
Supported by
The Flemish authorities, City of Ghent, Province East Flanders
Co-organized by
Guro Cultural Foundation

29

Na-hyun Lee & Dong-uk Seo

A Certain Contradiction

이나현, 서동욱
어떤 모순

춤에 극도로 충실할 때 춤은 그 자신을 넘어선다. 그것은 춤 자체—춤의 기술이나 역사—를 부정하면서 다시 춤이 되는 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젊은 포사이스'로 알려진 안무가 이나현의 춤은 그러한 배반의 궤적이다. 이제 그녀는 또다시 배반한다. 몸으로써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가 언어로써 말한다. 이는 춤으로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념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춤에 충실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수행적 발화 행위이다. 더구나 철학자 서동욱의 진술이 또 다른 트랙으로 출현할 때, 언어 철학자 J. L. 오스틴의 말처럼 모든 문장은 궁극적으로 수행문임이 드러난다.

Na-hyun Lee's dance goes beyond itself though it tries to be itself. It is because it is the kind of dance that denies dance itself—its technique or history—to become dance again. The works of Na-hyun Lee are the trace of such betrayal. Now she betrays again. The person who wants to say everything with body makes a statement. It does not mean that it would not be enough with dance alone. It is not a notional explanation but a performative utterance. Furthermore, when the remark of Dong-uk Seo, a philosopher, overlaps, every sentence ultimately turns out to be a performative sentence as J. L. Austin, a linguistic philosopher claimed.

30



Photo © Sanghyun Bae

Composition & arrangement
Na-hyun Lee, Dong-uk Seo
Performance
Na-hyun Lee & UBIN Dance,
Dong-uk Seo

31

Catherine Sullivan, Sean Griffin & Yohangza Ouija!

캐서린 설리번 · 션 그리핀 · 극단 여행자
영매

캐서린 설리번과 션 그리핀에게 역사적 산물은 고립된 독립체가 아니다. 거대한 기호의 망 속에서 작동하는 기표들의 반복과 재조합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한 편의 연극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들이 한국 공연을 위해 제작한 <영매>는 극단 여행자의 '원작'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한다. 영매가 귀신을 초대하듯, 배우들은 '습득된 연극'의 시각적, 언어적, 극적 모티브들을 불러들인다. 작은 몸짓이나 대사, 세트 등 원작의 구성 요소들은 새로운 언어적, 정치적 층위를 파생시키기 위한 재료가 된다. 설리번과 그리핀의 작업에서 연출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과정이다.

극단 여행자는 제15회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 대상을, 제10회 폴란드 그단스크 국제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대상 및 관객상을 받았다. 2006년에는 한국 단체로는 최초로 영국 바비칸 센터에 초청되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더불어 극단 여행자는 자신의 연극을 형식화하는 변혁과 새로운 언어를 구축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Catherine Sullivan and Sean Griffin have produced performances and theater works that address a broad array of performative strategies and social functions. Using stylistic economies, gestural and choreographic regimes, and conceptual orthodoxies, they often collaborate with theater ensembles and make use of existing productions as source material.

Ouija! regards the "found" production as an ecology that opens itself up to other elements, performers, sounds etc. The psychological and historical aspects of the original production become contingent. Sullivan and Griffin's work playfully instrumentalize the idea that no historical object can persist in its own self-understanding. An anxious, unresolved political sensibility emerges.

Yohangza Theatre Company places importance on the actors' understanding of their bodies, their creativity, musical abilities and communication methods with audiences. They improve by constant experimentation and are on a journey exploring new theatrical languages and changes in collaboration with video artist Catherine Sullivan's *Ouija!*.



Photo © LG Art Center & Yohangza, Peer Gynt

Yohangza Theatre Group

Concept & direction

Sean Griffin, Catherine Sullivan

Supported by

CJ Culture Foundation

Friend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09 Monsoon Project»

AsiaNow

Catherine Sullivan & Sean Griffin

The Chittendens

Arko Art Center 2F

3.27 Sat - 5.2 Sun
전시
Exhibition

아르코미술관 2층



Photo © Catherine Sullivan & Sean Griffin

캐서린 설리번·션 그리핀
치텐덴스

‘역할을 맡는다’는 연극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페르소나’를 이루는 특징들은 어떻게 형식적인 요소로 전환될 수 있을까?

배우들에게 특정한 ‘태도’를 부여함으로써 시작되는 캐서린 설리번과 션 그리핀의 기나긴 작업 과정은 배우들이 발전시키는 ‘몸짓’들을 분리, 재조합, 변형시키는 분석적인 절차로 이루어진다. 개별적인 신체적 모티브들은 마치 악보를 구성하는 음표처럼 분절되어, 산술적이고도 음악적인 구조를 정교하게 이룬다.

작품의 형식은 촬영 장소에 산재한 기억의 파편들과 교접하며 새로운 해석의 층위들을 발생시킨다. 미시건호의 등대섬과 시카고의 한 유기된 사무실이 그것이다. 우연히 발견한 ‘치텐덴’ 보험사의 등대 모양 로고, 그리고 소스타인 베블렌의 《유한계급론》도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수행적인 역사의 재구성에 공모한다. 이 모든 것들이 축적시키는 의미들의 총체는 정신의 격렬한 떨림과 정교한 형식미가 어우러지는 그로테스크한 카니발이자 장엄한 교향곡이 되어 파열한다.

이 감각적이고도 지적인 작품이 내뿜는 침예한 심리적, 형식적 의미들을 해독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몸의 치열한 리듬감과 관능적인 미장센에 그냥 눈과 귀를 맡기는 것이다.

Working frequently with composer Sean Griffin, Catherine Sullivan's works engage a variety of media—theater, film, video, photography, writing and sculpture. Sullivan and Griffin have produced several performances and theater works wherein the performers are often coping with written texts, stylistic economies, reenactments of historic performances, gestural and choreographic regimes, and conceptual orthodoxies.

The Chittendens (2005) derives its *mise en scene* from Thorstein Veblen's book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 and was shot in a liquidated office building in Chicago and at an abandoned lighthouse on Poverty Island. The piece consists of choreography and music and vocal arrangements developed with Sean Griffin. The actors rehearsed gestures and attitudes and performed them as a musician would, following a precise score. The piece hopes to create suspense between the actors' execution of the score and its automation of them. The costumes are drawn from a range of managerial and leisure class archetypes and this animates the setting, shot as it was found, an office building filled only with the strange material cast-offs of American business culture. In the scenes at Poverty Island, a sea captain is melancholic because the lighthouse is in decay. The iconography that is supposed to envelope him is crumbling. He can't resuscitate his metaphor, and neither can we, the metaphoric.

Lee Young June Silent Writing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4.6 Tue 8pm / 4.7 Wed 8pm

공연 시간 무제한

Duration unlimited

이르코예술극장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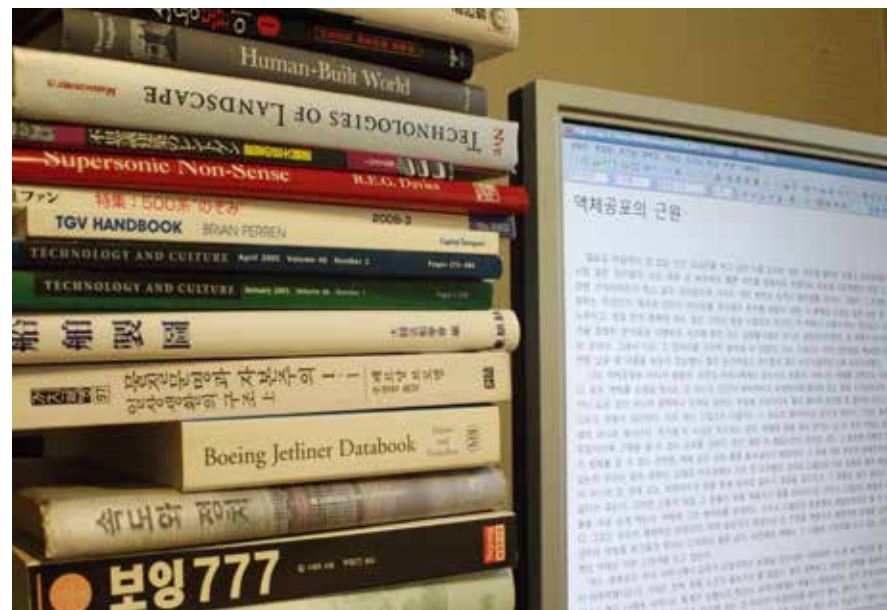


Photo © Lee Young June

Writer
Lee Young June

이영준
조용한 글쓰기

사람이 글을 쓰는가, 글이 사람을 쓰는가. <조용한 글쓰기>는 이 물음에 대답하려는 퍼포먼스이다. 이 퍼포먼스에서 평론가 이영준은 실제로 글 쓰는 과정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글이 말을 문자로 옮겨 놓은 것이므로 거기에 어떤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글에는 목소리가 없다. 거기에는 앞으로 나아가기, 머뭇거리기, 되짚어 오기, 뛰어넘기, 훑쳐오기 같은 액션들만이 있을 뿐이다. 그 액션의 주체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언저리에 진을 치고 있는 생각들, 느낌들, 참고 사항들, 문장 부호들, 관계들이다. 글 쓰는 과정은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상호 간섭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관객들은 이 과정을 빔프로젝터로 보게 될 것이다. 이 퍼포먼스는 필자 특정한(writer-specific event) 이벤트인데, 그 이유는 이영준이 글을 쓰는 과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영준은 보편자의 입장에서 글 쓰지 않으며, 미리 준비된 지식을 가지고 글 쓰지 않는다. 그에게 글 쓰는 과정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생각을 외화하는 과정이자 생각이 모양새를 갖춰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의 글쓰기는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생각이 특정한 순간에 떠오를 때만 할 수 있는, 대단히 특수한 사건이다. 이것은 시나리오 없는 퍼포먼스이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퍼포먼스이다.

Does a human write, or does a writing write a human? *Silent Writing* is a performance answering this question. In this performance, the critic Lee Young June shows the process in which he writes a critical piece. His main topic of writing is images and machine. In this performance, he will show the whole process of writing a piece of a critical essay in this realm. Mostly people think that as a writing is an incarnation of words in letters, there should be some voice in it. But there is no voice in writing. There are only actions like moving forward, hesitating, turning back and jumping over. The subject of these actions is not a human but thoughts, feelings, references, punctuation marks and relations. The process of writing is a dynamic one in which they collide and interact with one another. The spectators will see it as a projected image on a screen. This performance is a writer specific event, due to the specific way in which Lee Young June writes. He does not write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omnipotent godlike all-seeing eye. Nor does he write with prearranged material. To him, the process of writing is an event in which the thoughts spout like a waterfall and they shape themselves to a certain form. So his writing can never be repeated. It is a very special event that can occur only when thoughts spout out. *Silent Writing* is a performance without a scenario and its outcome cannot be predicted.

Apichatpong Weerasethakul

A Letter to Uncle Boonmee

FilmForum

4.3 Sat 12:30pm / 4.4 Sun 12:30pm
17 min 50 sec

필름포럼



Photo © Chayaporn Maneesutham

Cast

Kumgieng Jittamaat, Miti Jittamaat,
Phetmongkol Chantawong,
Nuttapon Kemthong, Atapon
Wernziw, Tongsit Rachasin

Assistant producer & assistant director

Suchada Sirithanawuddhi

Art director

Akekarat Homlaor

Sound

Chalermrat Kaweewattana

Sound designer

Akritcharlern Kalayanamitr

Director of photography

Sayombhu Mukdeeprom

Editors

Lee Chatametikool, Apichatpong
Weerasethakul

Director

Apichatpong Weerasethakul

Producers

Simon Field, Keith Griffiths
(Illuminations Films)

Commissioned by

Animate Projects (London),
Haus der Kunst (Munich), FACT
(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 Liverpool)

Friends

FilmForum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분미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

“분미 아저씨에 관한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생’에 관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여기엔 촬영을 하기 좋은 집이 몇 채 있어요. 그런데 아저씨의 집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라오스 접경지대의 나무아는 더 이상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이다. 한 때 융성했던 공산농장, 30년에 걸친 타이 정부의 폭력적 탄압,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의 흔적은 나무아의 숲에 남아 있지 않다. 이념도 슬픔도 모두 사라졌다.

〈분미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는 나무아를 다루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프리티티브(Primitive)’의 한 부분이다. 탐구의 여정에서 위라세타쿤은 공산농장의 후손들을 만난다. 그들은 위라세타쿤이 분미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준다.

위라세타쿤에 있어서, 과거는 현재를 지배하지만, 기억의 의미를 성립시켜주는 논리나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상과 섞인 과거의 단상들이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영혼들의 집 주변을 오간다. 사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광경 속에 어찌면 환생한 분미 아저씨가 살아 있을지 모른다.

A slowly moving camera captures the interiors of various houses in a village. They are all deserted except one house with a group of young soldiers. They are digging the up the ground. It is unclear whether they are exhuming or burying something. The voices of three young men are heard. They repeat, rehearse, memorise a letter to a man named Boonmee. They tell him about a small community called Nabua where the inhabitants have abandoned their homes. The wind blows fiercely through the doors, and the windows, bringing with it a swarm of bugs. As evening approaches, the sky turns dark. The bugs scatter and the men are silent.

A Letter to Uncle Boonmee is part of the multi-platform Primitive project which focuses on a concept of remembrance and extinction set in the northeast of Thailand. Boonmee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feature film of th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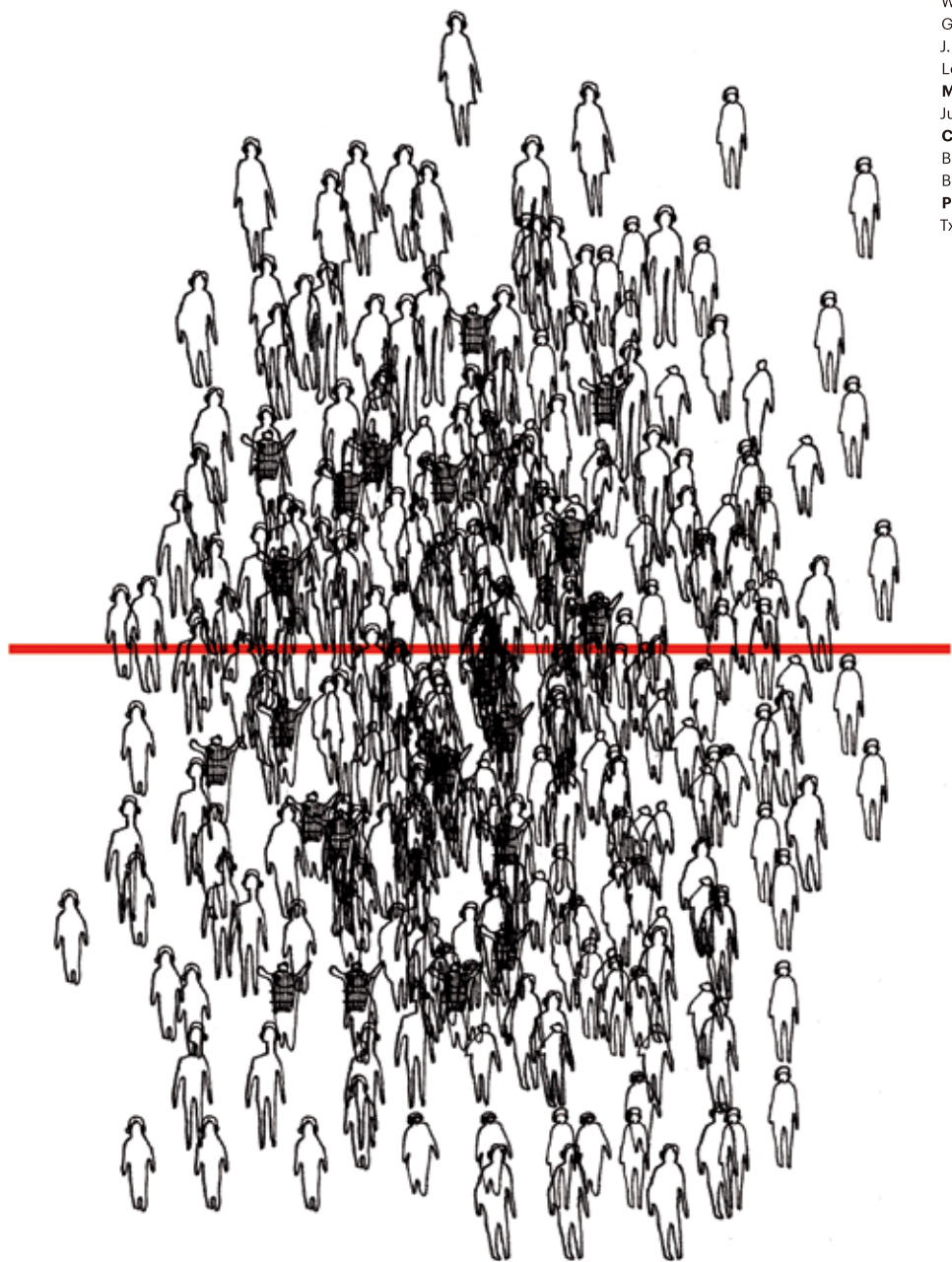
Roger Bernat

Domini Públic

Marronnier Park

4.17 Sat 2pm / 4.18 Sun 2pm
75 min

이르코미술관 앞 마로니에공원



Drawing © miss Capricho

Text & direction

Roger Bernat

Music

W. A. Mozart, A. P. Borodin,
G. Mahler, A. Dvorak, B. Smetana,
J. Sibelius, J. Williams, E. Grieg,
Lole y Manuel

Musical arrangements

Juan Cristobal Saavedra

Costumes

Barbara Glaenzel, Dominique
Bernat

Photos & technical direction

Txalo Toloza

With the support of

Generalitat de Catalunya, Entitat
Autònoma de Difusió Cultural—
Departament de Cultura i Mitjans
de Comunicació, the United
Europe Community—General
Direction of Education and Culture,
Cultural Program 2007–2013,
Workspace Brussels, Institut
Ramon Llull

Co-organized by

Arko Art Center

Technician in tour

Alberto Barbara

Digital technician

Aleksei Hescht

Graphics

Marie-Klara Gonzalez

(Miss Capricho)

Coordination

Helena Febres Fraylich

Collaboration artist

yoobyungseo

Thanks to

Victor Molina, Mia Esteve

Korean translation of the text

Younghye Cha

English translation of the text

Marti Sales

English Voice

Richard Marshall

Korean voice

Younghye Cha

Production

La Mekanica / APAP (Barcelona),

Teatre Lliure (Barcelona), Centro

Parraga (Murcia), Electrica

Produccions (Barcelona)

로제르 베르나트

공공영역

한 편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객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며,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까? 만약 이런 궁금증이 든다면, 적어도 <공공영역>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지식은 '공공영역'이 된다. 관객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과정이 곧 작품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연출가 로제르 베르나트의 신작에서 배우는 곧 관객이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까? 맞으면 옆으로 한 걸음 옮기시오. 항상 침상의 같은 쪽에서 잠을 잡니까? 맞으면 손을 드시오.” 헤드폰을 통해 사적으로 진행되는 질문들은 단순하고 미묘하기 그지없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은 절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관객/배우’들이 간단한 반응을 보이는 동안 어느덧 즉흥적으로 일시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또 소집단들이 형성된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행동 패턴이 그대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사회 인류학적인 제스처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출가의 ‘양몰이’ 솜씨는 참가자 한 명 한 명을 집단적 주역으로 변신시키고, 입체적인 설문 조사처럼 시작하는 여정은 기괴한 픽션으로 재배치된다. 의미의 해석은 관객의 ‘뉘’이자 ‘뭉’이다.

Domini Públic is (like) a game. A life-size board game in which the spectator is more than just a pawn. Theater-maker Roger Bernat assembles a group of people, the audience of Marronnier park. Who are they, where do they come from and what is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They walk across the park while listening to a series of questions and instructions on their headphones. Were you born in Seoul? Take one step to the side. Do you always sleep on the same side of the bed? Put up your hand. Some are more innocent than others. The same can't be said for the result; through the participants' simple movements, small groups start to form in the audience. These micro communities expose underlying social patterns and tell a tale that Bernat carefully orchestrates. While *Domini Públic* starts off looking like a 3D poll brought to life, the project ends up transforming into a bizarre fiction. This Catalan theater-maker goads on the spectator, who plays a central role in this project, without requiring him to bare himself as an individual.

Xavier Le Roy

Le Sacre du Printemps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re

3.30 Tue 7pm
45 min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Photo © Vincent Cavaroc

Concept and performance

Xavier Le Roy

Music

Igor Stravinsky

Sound design

Peter Boehm

Recording

Berliner Philharmoniker

Conducted by

Sir Simon Rattle

Collaborators

Berno Polzer, Bojana Cvejic

Management/organisation

Vincent Cavaroc & Fanny Herserant

Production

in situ productions (D) &

Le Kwatt (F)

Co-production

Centre chorégraphique national de Montpellier Languedoc-Roussillon (Xavier Le Roy Associated Artist 2007/08), Les Subsistances / Residence (Lyon), Tanz im August—Internationales Tanzfest 2007 (Berlin), PACT Zollverein Choreographisches Zentrum NRW (Essen)

Supported by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with funding provided by the German Federal Cultural Foundation as part of its project Dance Plan Germany

Friends

GOETHE-INSTITUT

42

자비에 르 루와
봄의 제전

신체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생물학자 출신의 안무가 자비에 르 루와는 무용을 가장 근본적인 골격으로 환원시킨다. 그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무용 작품으로 옮기기 위해 영감으로 삼는 원천은 지휘자의 모습이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공연은 음악적 영감이 아닌 시각적 모티브가 된다. 지휘자를 자처하는 르 루와는 음악을 이끄는 듯하지만, 이는 허상일 뿐, 실은 정확히 안무된 동작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청각적 감흥과 시각적 교감은 하나의 통감각적인 체험으로 통합되는 대신, 기묘하게 충돌한다. 지휘와 안무가 서로를 향해 미끄러짐으로 인해, 음악과 신체 간에 묘한 간극이 발생한다. 그의 움직임, 음악, 관객은 한 공간에 공존하며 감정이입을 통해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듯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오히려 좁힐 수 없는 이질적 영역들 간의 경계를 드러낸다.

Observing the Berlin Philharmonic during a rehearsal of *Le Sacre du Printemps* in 2003 (documented in *Rhythm is it* DVD), Xavier Le Roy decided to work on Stravinsky's classic from an interest in the movements of conducting. Having no musical training, Le Roy ventured into a laborious process of studying a conductor's interpretation as if it were a choreography of its own.

An inversion of cause and function unfolds: the gestures and the movements that are meant to prompt musicians to play appear at the same time to be produced by the music they are supposed to produce.

When is one playing and when is one being played by this highly motile music? What is the moment before and after the sound, the movement, the intention to move, the motorics of the play? How much is our pleasure in listening to music rise in live performance conducted by a desire for, and a trouble about, the synchronicity of a well-functioning machine?

There are as many bodies as there are different roles and perspectives in listening: what hears the musician, the conductor or the spectator when hearing as a result becomes part of an embodied, inevitably visceral experience of movement and sound?

43

Hwayeon Nam

Operational Play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4.10 Sat 5pm / 4.11 Sun 5pm

신작

New production

이르코예술극장 소극장



Drawing © Hwayeon Nam

Performers

Hwayeon Nam, SoYoung, Song Myoung Gyu, SoDam Lee, Yun Kyung Hur, Choi eun jin, Suh Yeong Ran, Chang hyeon joon, Lee Sun A, Hyun See Won, Hyunjeong Kim, Ho Kyung Lim, Ha Eo Young, So Yun Cho, Kim Jaeyoung

Each performer completed movement based on the body formula.

Players

Skeleton sound

Music

Younggyu Jang

Directed by

Hwayeon Nam

Friend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09 Monsoon Project▶

남화연

오퍼레이션널 플레이

〈오퍼레이션널 플레이〉에서는 총 14개 작전명이 등장인물로, 9개 작전명이 무대장치 및 소도구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1945년 미군의 오키나와 침략 작전명 ‘빙하’는 등장인물 중 하나로, 2003년 사담 후세인 체포 작전명 ‘붉은 새벽’은 무대장치로 등장하게 된다. 전쟁 혹은 군사 훈련의 작전명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의 용도, 목적 및 함의하는 내용과는 상이하게 매우 문학적인 수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러한 가공의 어법에 주목한 데에서 작업이 시작되었다.

〈오퍼레이션널 플레이〉는 동일한 제목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텍스트는 일종의 설계도 혹은 매뉴얼로서 작전 혹은 작동하게 된다. 2009년 일반 참여자들과 함께 도시라는 문맥 안에서 텍스트를 수행하는 퍼포먼스를 하였으며, 전시된 바 있다. 이번 페스티벌 불을 통해서 작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작곡가 장영규와의 협업을 통해 무대에서 실현한다.

In *Operational Play*, a total of 14 operational names are used as characters and 9 are used as stage settings and props. For example, Iceberg, the operation of US attack on Okinawa, Japan, appears as a character name while Red Dawn, the operation to capture Saddam Hussein appears as the stage setting in the play. It is very common that operational names are exceedingly literary and often do not correspond with the purposes, objectives and implications of the operations. This project sprang from a close attention to such mechanism of these code names *Operational Play* is based on the text, which will operate the play as a sort of blueprint or manual. In 2009, a video documentation of the performance was exhibited. The performance was played with participants within in the context of the city. In this festival, *Operational Play* will realize the text in a different way in collaboration with composer Younggyu Jang.

Wael Shawky

Télématch Series



Photo © Wael Shawky

와엘 샤키 텔레마치 시리즈

〈텔레마치〉는 1970-80년대 독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게임으로, 독일의 다른 두 지방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시간을 다투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게임의 구조를 차용한 와엘 샤키의 동명의 설치 작품은 오늘날 이집트 사회에서 나타나는 젠더, 사회 계층, 세대 간의 갈등과 경쟁을 드러낸다.

Télématch project is videos, video installations and drawing series that comprises *Télématch Crusades*, *Télématch Shelter*, *Télématch Sadat*, *Télématch Market*, and *Telematch Suburb*. The series references *Télématch*, the world-famous German television showcase broadcast in the '70s and '80s, where inhabitants of two different German towns competed in a series of elaborate time-clocked games. The project sets the stage for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s, social classes, contesting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models, and generations in the time bracket spanning from the 1970s to the 2000s in Egypt.

Nikolaus Geyrhalter

7915 Km

Directed and photographed by
Nikolaus Geyrhalter
Edited by
Wolfgang Widerhofer
Script
Maria Arlamovsky, Nikolaus Geyrhalter, Wolfgang Widerhofer
Sound
Lea Saby
Assistant cameramen
Gerald Piesch, Christoph Grasser
Location manager / assistant director in Senegal
Evelyne Faye Mac-Gowan
Assistant director
Sedjro Mensah
Camp manager
Michel Tentschert
Still photography
Philipp Horak
HD-post production
Listo Videofilm GmbH
HD online
Geoff Kleindorfer
Colour grading
Thomas Varga
Film recording
Herbert Fischer
Film prints & sound post-production
Synchro Film und Video GmbH
Color correction
Sepp Kloucek
Sound mixing
Alexander Koller
Sound design
Daniel Fritz
Special technical support
Christian Schmidt



Photo © 2008 NGF

Public relations
Anne Wendelin
Press material
Nicole Scherg
Translation
Steve Wilder, Evelyne Faye Mac-Gowan, Karin Schiefer, Bakhoum Habiboulah Ndongo, Mamadou Kone, Sidati Abba-Khalihana, Habiboulah Bakhoum, Yá Cisse
Research
Maria Arlamovsky, Nikolaus Geyrhalter, Benedikt Grossmann
Graphic design
Fabian Geyrhalter Design: Fabian Geyrhalter, Stella Schmidt
Webpage
JART: Markus Krottenhammer, Arthur Russegger-Brooks, Silvia Burner

니콜라스 게이어할테
7915 Km

다카르 랠리. 모험과 속도 마니아들의 머나먼 로망. 기술과 인내의 궁극적 시험대.

〈일용할 양식〉의 니콜라스 게이어할테 감독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이 세기적 스포츠의 경로를 따라간다. 기행 취재물이 배제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2주가 넘게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삶의 단상들을 담기 위해서.

모로코, 사라위, 모리타니, 말리, 세네갈 등 '죽음의 자동차 경주'가 관통하는 장소들에는 불균등한 국제 관계와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진다. 질주의 주변에는 느낌이 산재하고, 획일적인 목표 지향적 이동의 이면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혼재한다. '인간'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다카르 랠리는 무엇인가? 유럽이란 어떤 곳인가? 아프리카란 무엇인가?

결국 7915 km라는 거리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놓인 정치적 거리이기도 하다. 기술과 속도의 궤도는 곧 문화와 역사의 궤적이다.

A motor-sports spectacle that kicks up plenty of dust. On the trail of the 2007 Dakar Rally 7915 Km undertakes a search, along the way encountering the variety to be found in Africa's present in Morocco, Sahrawi Republic, Mauritania, Mali and Senegal. 7915 Km demonstrates the extent of this distance, which is the result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nd also the ideas and prejudices to be found in both Europe and Africa. It also makes the closeness tangible, which becomes clear in the stories of everyday life, work, hopes and worries. Keeping the sobering reality in mind, it creates an homage to humanity and slowness which questions deep-seated perceptions and the role of Europeans in numerous, presumably African, problems.

Productions assistants
Nicole Scherg, Anne Wendelin
Production office
Barbara Kern
Production auditor
Markus Glaser
Production manager
Michael Kitzberger
Commissioning editors
Inge Classen, Franz Grabner
Producers
Nikolaus Geyrhalter, Markus Glaser, Michael Kitzberger, Wolfgang Widerhofer
Friends
FilmForum

Sungmin Hong Juliettttt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4.3 Sat 8pm / 4.4 Sun 5pm
70 min

이르코예술극장 소극장



Photo © Sungmin Hong

50

Directed by
Sungmin Hong & 5 directors
Performed by
5 actresses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홍성민
줄리엣

2009년 5명의 미술가에 대한 5명의 비평가의 글을 5명의 연극배우에게 시나리오 삼아 연기하게 한 작품을 선보였던 홍성민은 이번에는 5명의 연극배우들을 각기 다른 연출가들에게 보낸다. 각기 다른 5명의 연출가에게 훈련받은 5명의 배우들은 로미오를 비롯한 다른 모든 배역들과 무대장치가 사라진 무대 위에서, 유사하지만 유사하지 않은 5명의 줄리엣으로 동시에 연기한다.

Sungmin Hong presented works of 5 actors who base their acting on scenarios written by 5 critics' review on 5 visual artists in 2009. This time, 5 actors were each sent to different theater directors.

5 actresses, who have been trained act for Juliet by 5 different directors, stand on stage without the presence of Romeo nor any other casts and sets. Similar but yet dissimilar, 5 Juliets act on the same stage.

51

Alan Berliner

The Sweetest Sound

FilmForum

3.28 Sun 12:30pm / 4.10 Sat 12:30pm
60 min

필름포럼



Photo © Richard Dallett

Story consultant / reality checker

Spencer Seidman

Consulting producer

Emily Stevens

Sound mix

Bill Seery (Mercer Street Sound)

Computer animation

Jason Conradt

Additional cinematography

Joel Schlemowitz, D. W. Leitner,

George Gibson, Alan Berliner

Additional sound recording

Steve Robinson, Gautam K.

Choudhury

Assistant cameras

Catalina Santamaria, Mark Luther,

Greg Finkel

Optical printing

BB Optics, Cinema Arts Inc.

Negative matching

Noelle Penraat, Inc.

Laboratory

DuArt, Digital Image

Produced in association with
ARTE/France,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Finnish Broadcasting
Company/TV1, 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This film was funded by grants and
fellowships from**

Corporation for Public Broad-
casting,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Righteous Persons Found-
ation, Public Broadcasting Service,
Kodak/P.O.V. "In the Works" Award,
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Under the fiscal sponsorship of
Experimental Television Center,
Ltd.

Friends
FilmForum

**Produced, directed, written &
edited by**

Alan Berliner

Associate producer

Laurie Wen

Director of photography

Richard Dallett

Recordist

Ian Douglas Vollmer

Story consultant

Susan Korda

With sincere thanks

Allen Jay Berliner,

Allen Jack Berliner,

Allen Irwin Berliner,

Allan Martin Berliner,

Alan Stuart Berliner,

Alan Richard Berliner,

Alan Michael Berliner,

Alan Keith Berliner,

Alan Jay Berliner,

Alan Frederick Berliner,

Alain Bertrand Berliner,

Alain Berliner

앨런 벌리너
가장 달콤한 소리

앨런 벌리너 감독이 <가장 달콤한 소리>에서 다루는 작품의 주제, 목적, 내용, 키워드는 한결같이 '앨런 벌리너'다. 그에게 있어서 자 신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소리 중 '가장 달콤'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세상에 '앨 런 벌리너'라는 이름이 고유한 것이라면, 자신이 향유하는 고유명 사가 정말로 '고유'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낮익고 평범한 이름을 반복, 재활용하는 문화적 관습이 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행위 따위는 더더 욱 혐오스럽다.

벌리너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름에 대한 집착을 해소하기 위해 최악 의 공포에 맞선다. 인터넷을 통해 지구 곳곳에서 자신과 같은 이름 을 가진 사람들 12명을 찾아 저녁 만찬에 초대한 것이다. 이 중에 진정한 '앨런 벌리너'가 있을까? 누가 가장 '앨런 벌리너'다울까?

'동명 십삼 인'이 펼쳐는 기이한 풍경은 감독의 자화상이자,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결국 이 수행적인 다큐멘터리에서 '이름'은 사소 한 소유욕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가족의 의미와 미국의 문화와 역 사에 대한 단상들을 불러일으키는 주문이 된다.

Alan Berliner is a lawyer in Columbus, Ohio. Alan Ber-
liner is a social worker in Seattle, Washington. Alan
Berliner is a celebrity photographer in Los Angeles,
California. Tired of being mistaken for these people
and anyone else who might share his name, Alan
Berliner, the filmmaker from New York—not to be con-
fused with Belgian filmmaker Alain Berliner—decides
to rid himself of the dreaded Same Name Syndrome.
His solution: invite all the Alan Berliners in the world
over to his house for dinner.

With the intimacy and humor of a personal essay, Ber-
liner dives headfirst inside the American name pool
in search of the treasures and dangers hidden inside
his own name. A film that starts out in search of iden-
tity slowly transforms into a meditation on mortality.
Along the way, he confronts his parents about the ori-
gins of his name, his sister about the names she gave
her children and visits the Jim Smith Society, the Na-
tional Linda Convention, the streets of New York, Ho-
locaust name memorials, the Vietnam Memorial and
the AIDS Quilt. He also stumbles upon some surprising
news about name changes at Ellis Island.

In the end Berliner leaves us with a greater sense of the
power and magic embedded in a name, and how all of
our identities are inescapably shaped by what we call
ourselves. A film guaranteed to make you think twice
about the who, the why and the where contained in
every name, *The Sweetest Sound* has Berliner's inimi-
table filmmaking signature written all over it.

Sulki & Min Springmore



Streets around venues

3.27 Sat - 5.4 Tue
설치
Installation

공연장 주변 거리

Drawing © Sulki & Min

Coordination
Festival Bo:m

슬기와 민
점점 봄

페스티벌 봄 기간 동안 공연장 주변 거리에서 점점 봄을 알리는 것
발들. 걸으면 걸을수록, 보면 볼수록 봄이 오고 가는 거리를 점점 봄.
살랑살랑 봄바람에 점점 벗겨지는 깃발과 점점 드러나는 봄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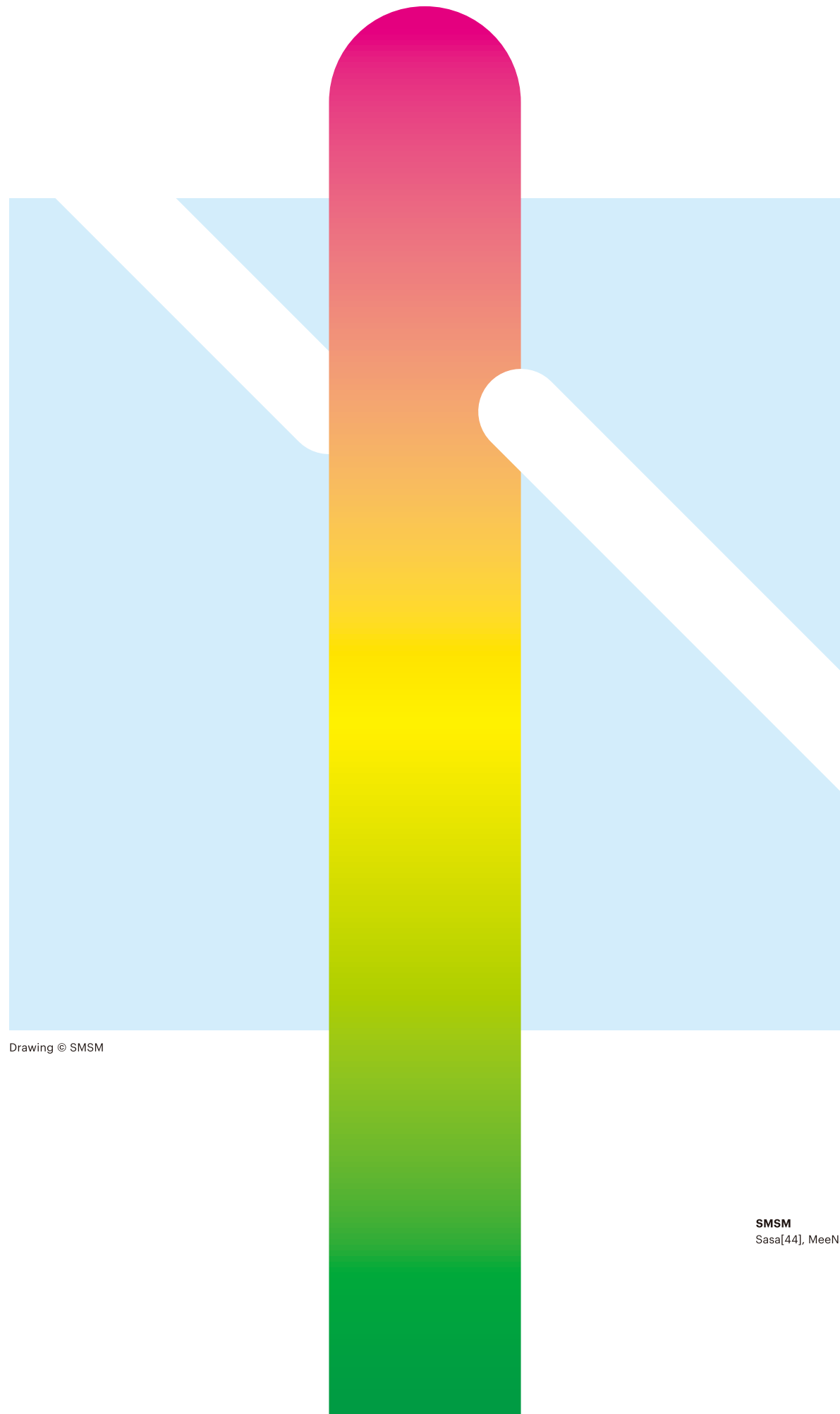
During the Festival Bo:m 2010, banners on the street
will be signaling the new spring coming. More and
more.

SMSM

You Are Here

(In the Form of Dance)

Outside Arko Arts Theater
 4.24 Sat 3pm
 퍼포먼스
 Performance
 아르코예술극장 앞
 Outside each venue
 3.27 Sat - 5.4 Tue
 설치
 Installation
 각 공연장 앞



Drawing © SMSM

SMSM
 Sasa[44], MeeNa Park, Sulki & Min

SMSM
 현재 위치 (춤으로)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응용미술 집단 SMSM(Sasa[44], 박미나, 슬기와 민)의 호객 프로젝트. 공연이 있을 때 공연장 앞에서 봄바람에 맞춰 춤을 추며 위치를 알린다. 사람이 페스티벌 기간 내내 춤을 추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대신해 줄 '무언가'가 설치된다.

SMSM is a collective of four artists—Sasa [44], MeeNa Park, Sulki & Min—devoted to applied art for healthier and happier life, and *You Are Here (In the Form of Dance)* is their functional contribution to the Festival Bo:m 2010. The idea is to physically mark the venues by dancing in front of the buildings. For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for them to dance all the time during the festival, they have decided to put up “something” to replace themselves.

Events

캐서린 설리번·선 그리핀

워크숍
3.21 일 4pm
대학로 정보소극장

필립 부스만 (포사이스 컴퍼니)

렉처
3.25 목 6pm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크리스 콘덱

렉처
3.25 목 5:30pm
연세대학교 성암관 2층

캐서린 설리번·선 그리핀

작가와의 대화
3.26 금 4pm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서현석·조전환

진행: 김남수
작가와의 대화
3.29 월 8pm 공연 이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세들라베 무용단

작가와의 대화
4.2 금 8pm 공연 이후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홍성민

작가와의 대화
4.4 일 5pm 공연 이후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로제르 베르나트

작가와의 대화
4.17 토 4pm
아르코미술관 세미나실

이정우 × 정금형 × 잭슨홍

작가와의 대화
4.24 토 5pm 공연 이후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이나현·서동욱

작가와의 대화
4.24 토 5pm 공연 이후
4.25 일 5pm 공연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캐서린 설리번·선 그리핀

작가와의 대화
4.9 금 8pm 공연 이후
대학로 정보소극장

Catherine Sullivan & Sean Griffin

Workshop
3.21 Sun 4pm
Jeong Bo Theater

Philip Bußmann (The Forsythe Company)

Lecture
3.25 Thu 6pm
Arko Art Center Seminar Room

Chris Kondak

Lecture
3.25 Thu 5:30pm
Yonsei University Seongam Hall 2F

Catherine Sullivan & Sean Griffin

Artist talk
3.26 Fri 4pm
Arko Art Center Seminar Room

Hyun-Suk Seo & Jeonhwan Cho

Moderator: Namsu Kim
Artist talk
3.29 Mon
After the performance
Arko Arts Theater, Main Hall

Les Ballets C de la B

Artist talk
4.2 Fri
After the performance
Guro Arts Valley Theatre

Sungmin Hong

Artist talk
4.4 Sun
After the performance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Roger Bernat

Artist talk
4.17 Sat 4pm
Arko Art Center Seminar Room

Geumhyung Jeong × Chungwoo Lee × Jackson Hong

Artist talk
4.24 Sat
After the performance
Arko Arts Theater, Main Hall

Na-hyun Lee & Dong-uk Seo

Artist talk
4.24 Sat
After the performance
4.25 Sun
After the performance
Sogang University Mary Hall, Small Theatre

Catherine Sullivan & Sean Griffin

Artist Talk
4.9 Fri 8pm
After the Performance
Jeong Bo Theater

Credits

페스티벌 봄 2010
국제다원예술축제
2010.3.27-5.4

장소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극장
마로니에공원
대학교 정보소극장
남산예술센터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서울월드컵경기장
필름포럼

주최

페스티벌 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협력기관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남산예술센터
구로문화재단
필름포럼
하이서울페스티벌
게원디자인예술대학
주한독일문화원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주한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
CULTURESFRANCE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di Seoul
GOETHE-INSTITUT
Dance Plan Germany
(the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by the German Federal Cultural Foundation)
The Flemish authorities, City of Ghent, Province East Flanders VZW Buelens Paulina
The Flemish Community, Eugeen Steurs
Institut Ramon Llull
Kulturstiftung des Bundes
Opera National de Paris (Paris)
Productiehuis Rotterdam (Rotterdamse Schouwburg)
Hebbel am Ufer (Berlin)
Kunstlerhaus Mousonturm (Frankfurt)
Loterie Romande
Etat de Vaud
Pro Helvetia—Fondation suisse pour la culture
Ville de Lausanne
Banque Cantonale Vaudoise

협찬

미디어빈

디렉터

김성희

사무국장

성용희

코디네이터

강윤지, 김동해

재무/티켓

김보린

재무/티켓 어시스턴트

정란

마케팅/홍보

성민경

홍보 어시스턴트

김민성

온라인 홍보 기획

조규진

온라인 홍보 및 부대 행사

태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장지혜

프로젝트 매니저

권정민

진행

김소영, 김지혜

테크니컬 디렉터

김지명

무대감독

이주현

김윤일

영상감독

우기하

조명감독

석보미

음향감독

오영훈

무대제작

김동경 (타프 무대미술)

조명장비

백시원 (73 Company)

디자인

슬기와 민

서버 지원

(주)컬처앤파트너스

**Festival Bo:m 2010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27 March - 4 May 2010

Venues

Arko Art Center
Arko Arts Theater
Marronnier Park
Jeong Bo Theatre
Namsan Arts Center
Guro Arts Center Theatre
Sogang Univ. Mary Hall
Seoul World Cup Stadium
FilmForum

Organized by

Festival Bo:m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ts Council Korea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ooperated with

Arko Art Center
Arko Arts Theater
Namsan Arts Center
Guro Cultural Foundation
FilmForum
Hi Seoul Festival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Goethe-Institut Korea
AMBASCIATA D'ITALIA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CULTURESFRANCE
Centre Culturel Français
Istituto Italiano di Cultura di Seoul
Goethe-Institut
Dance Plan Germany
(the national performance network by the German Federal Cultural Foundation)
The Flemish authorities, City of Ghent, Province East Flanders Vzw Buelens Paulina
The Flemish Community, Eugeen Steurs
Institut Ramon Llull
Kulturstiftung des Bundes
Opera National de Paris (Paris)
Productiehuis Rotterdam (Rotterdamse Schouwburg)
Hebbel am Ufer (Berlin)
Kunstlerhaus Mousonturm (Frankfurt)
Loterie Romande
Etat de Vaud
Pro Helvetia—Fondation suisse pour la culture, Ville de Lausanne
Banque Cantonale Vaudoise

Sponsored by

Media Bean

Director

Kim, Seong Hee

Director assistant

Sung, Yonghee

Coordinator

Kang, Yoon Zee
Kim, Donghae / Chloe

Accounting/tickets

Kim, Borin

Accounting/tickets assistant

Jung, Lan

PR/marketing manager

Sung, Min Kyung

Promotion assistant

Kim, Minsung

Online promotion manager

Cho, Qjin

Online promotion events

Tae Jun

Online communication

Jang, Jihe

Project manager

Kwon, Jungmin

Staff

Kim, So Young
Kim, Ji Hye

Technical director

Kim, Ji Myung

Stage manager

Joshep Joo Hyun Lee
Kim, Yoon III

Video supervisor

Woo, Ki Ha

Lighting supervisor

Seok, Bo mi

Sound supervisor

Oh, Young Hoon

Set & Stage

Kim, Dong-Kyung
(TAF Scenograph Studio)

Ligh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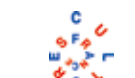
Beak, Si won
(73 Company)

Design

Sulki and Min

Server

Culture and Partners Inc.



Tickets

일반 티켓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서현석·조전환	전석 2만원
정금형 × 이정우 × 잭슨홍	전석 2만원
윌리엄 켄트리지 (퍼포먼스)	전석 3만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마레이스 볼로뉴	전석 3만원
홍성민	전석 2만원
이영준	전석 2만원
남화연	전석 2만원

	아르코미술관
포사이스 컴퍼니 패키지 티켓 예매 시 신청자에 한하여 선정 배포	
윌리엄 켄트리지 (전시)	미술관 입장료
캐서린 설리번·션 그리핀	미술관 입장료
와엘 샤키	미술관 입장료

	마로니에공원
로제르 베르나트	전석 1만원

	정보소극장
캐서린 설리번·션 그리핀·극단 여행자	전석 2만원

	남산예술센터
제롬 벨, <루츠 피르스터>	전석 3만원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세들라베 무용단·알랑 플라텔	R: 5만원 S: 4만원 A: 3만원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크리스 콘덱	전석 3만원
정연두	전석 3만원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자비에 르 루와	전석 3만원
이나현·서동욱	전석 2만원

	서울월드컵경기장
마시모 푸를란	무료

	필름포럼
니콜라스 게이어할테	7천원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5천원
앨런 벌리너	7천원
제롬 벨, <베로니고 두아노>	무료

패키지 티켓

2개 이상 예매 시	총 가격의 10% 할인
4개 이상 예매 시	총 가격의 30% 할인
6개 이상 예매 시	총 가격의 40% 할인
8개 이상 예매 시	총 가격의 50% 할인

단체 티켓

동일 공연 10인 이상 단체 예매 시	총 가격의 20% 할인
----------------------	--------------

기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총 가격의 50% 할인
-------------	--------------

티켓 예매

www.festivalbom.org

티켓 구매 방법

패키지 티켓	웹사이트에서만 예매 가능
단체 티켓	전화 예매만 가능
일반 티켓	웹사이트 및 현장 예매 가능

문의

페스티벌 봄 사무국
전화 02 741 3931
팩스 02 722 9618
ticket.festivalbom@gmail.com

Regular Tickets

	Arko Arts Theater, Main Hall
Hyun-Suk Seo & Jeonhwan Cho	20,000 won
Geumhyung Jeong × Chungwoo Lee × Jackson Hong	
	20,000 won
William Kentridge (performance)	30,000 won

	Arko Arts Theater, Small Hall
Marijs Boulogne	30,000 won
Sungmin Hong	20,000 won
Lee Young June	20,000 won
Hwayeon Nam	20,000 won

	Arko Art Center
The Forsythe Company	Package Ticket buyers only
William Kentridge (exhibition)	entrance fee
Catherine Sullivan & Sean Griffin	entrance fee
Wael Shawky	entrance fee

	Marronnier Park
Roger Bernat	10,000 won

	Jeong Bo Theatre
Catherine Sullivan, Sean Griffin & Yohangza	20,000 won

	Namsan Arts Center
Jérôme Bel, Lutz Förster	30,000 won

	Guro Arts Valley Theatre
Les Ballets C de la B & Alain Platel	R: 50,000 won S: 40,000 won A: 30,000 won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Chris Kondek	30,000 won
Yeondoo Jung	30,000 won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re
Xavier Le Roy	30,000 won
Na-hyun Lee & Dong-uk Seo	20,000 won

	Seoul World Cup Stadium
Massimo Furlan	free

	FilmForum
Nikolaus Geyrhalter	7,000 won
Apichatpong Weerasethakul	5,000 won
Alan Berliner	7,000 won
Jérôme Bel, Veronique Doisneau	free

Package Tickets

2 and more programs	discount 10%
4 and more programs	discount 30%
6 and more programs	discount 40%
8 and more programs	discount 50%

Group Tickets

10 and more for a single program	discount 20%
----------------------------------	--------------

Others

The disabled and men of national merit	discount 5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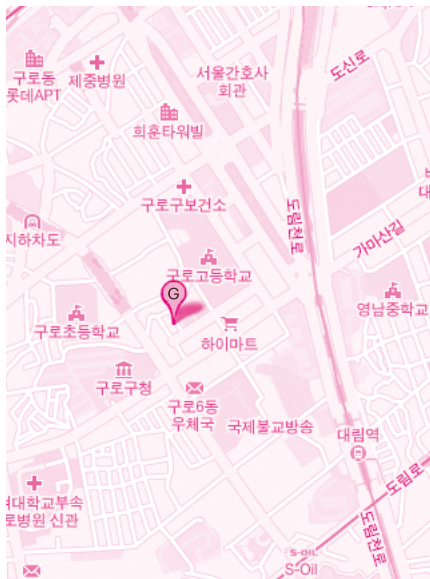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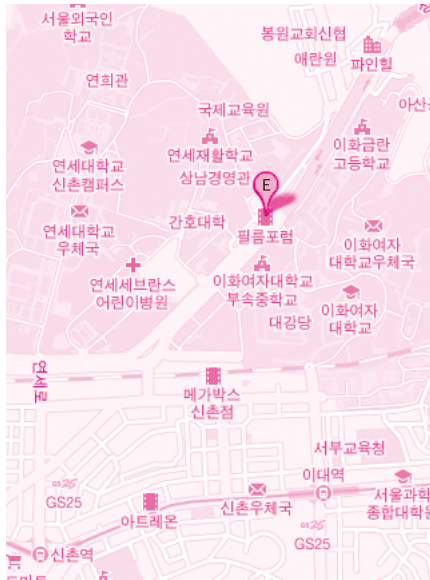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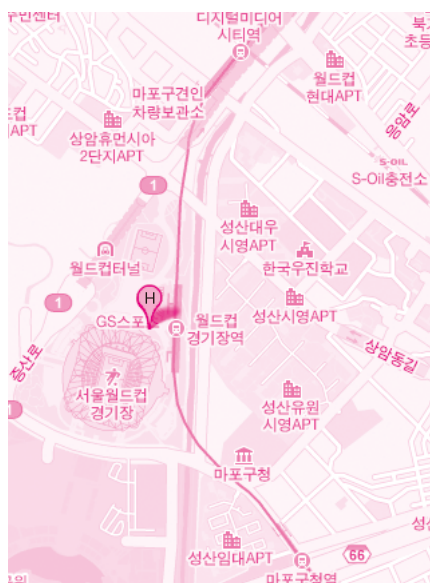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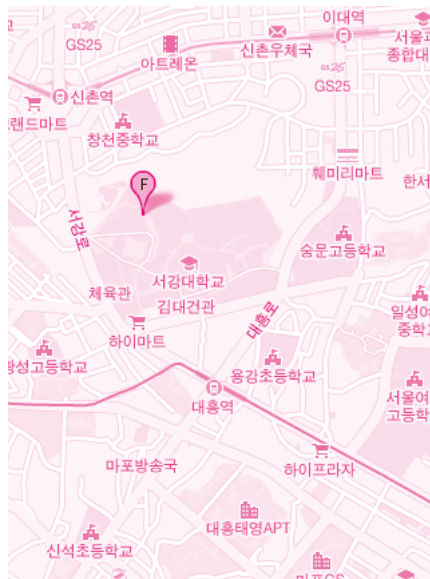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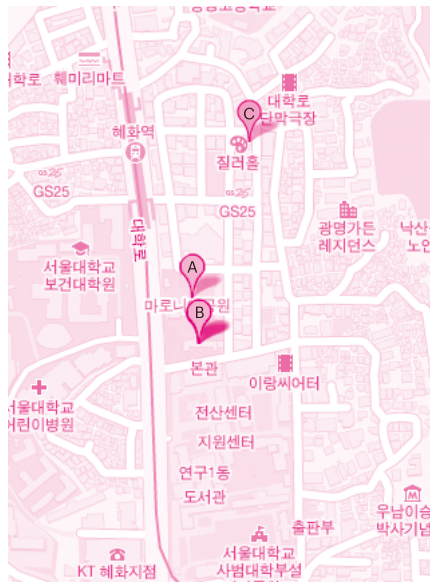
Reservation

www.festivalbom.org

Contact

Festival Bo:m Office
T 02 741 3931
F 02 722 9618
ticket.festivalbom@gmail.com

Venues



A
아르코미술관
Arko Art Center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T 02 760 4850
1-130 Dongsung-dong,
Jongno-gu, Seoul
www.arkoartcenter.or.kr

A
아르코예술극장
Arko Arts Theater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T 02 760 4877
1-130 Dongsung-dong,
Jongno-gu, Seoul
artstheater.arko.or.kr

B
마로니에공원
Marronnier Park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
T 02 731 0585
1 Dongsung-dong,
Jongno-gu, Seoul

C
대학로 정보소극장
Jeong Bo Theatre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81
T 02 3673 0554
1-81 Dongsung-dong,
Jongno-gu,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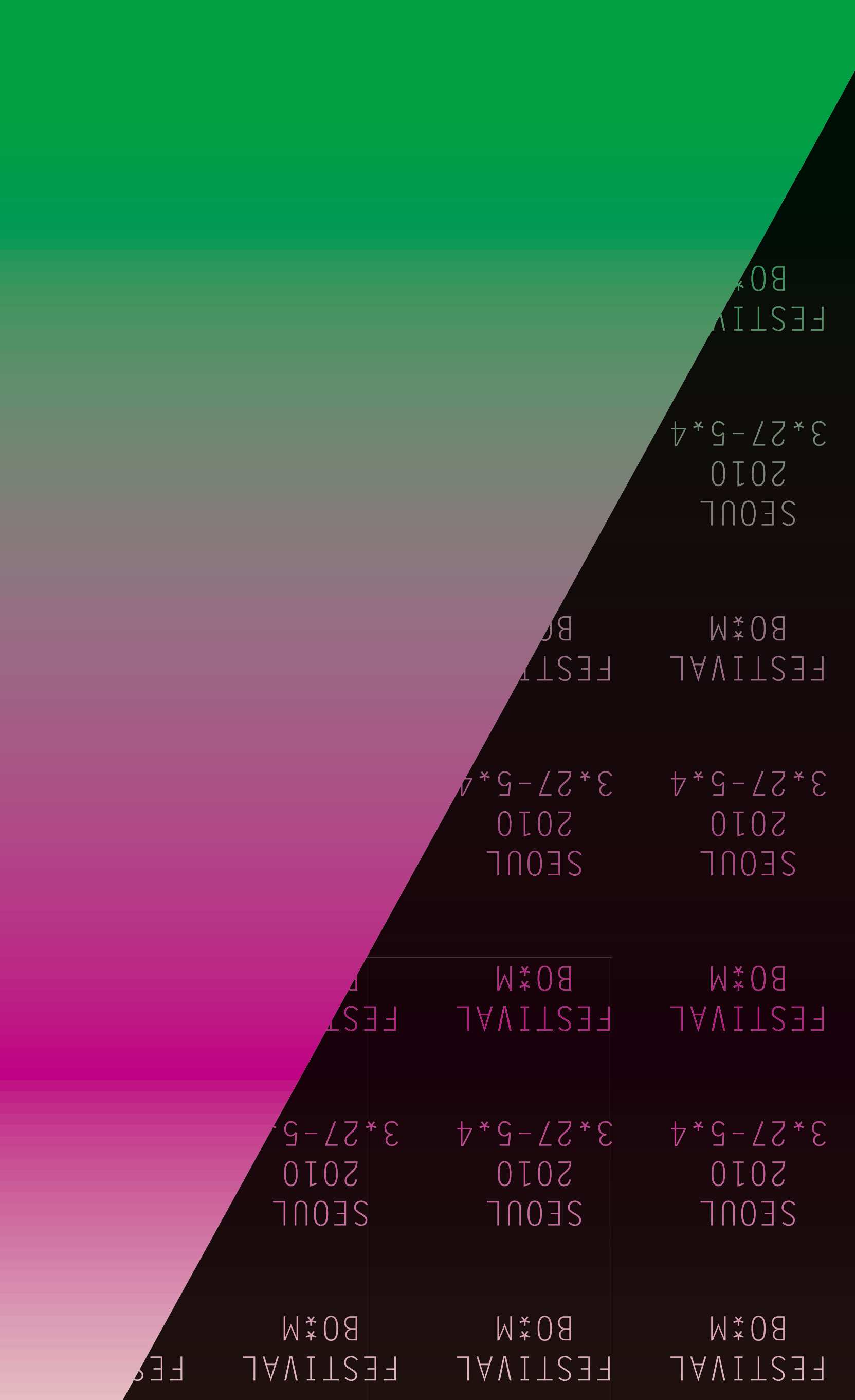
D
남산예술센터
Namsan Arts Center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9
T 02 758 2000
8-19 Yejang-dong,
Jung-gu, Seoul
www.nsartscenter.or.kr

E
필름포럼
FilmForum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85-1
T 02 312 4568
85-1 Daeshin-dong,
Seodaemun-gu, Seoul
www.filmforum.co.kr

F
서강대학교 메리홀
Sogang Univ. Mary Hall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T 02 705 8743
1-1 Shinsu-dong,
Mapo-gu, Seoul
maryhall.sogang.ac.kr

G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Guro Arts Valley Theatre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1
T 02 2029 1700
101 Guro-dong,
Guro-gu, Seoul
www.guroartsvalley.or.kr

H
서울월드컵경기장
Seoul World Cup Stadium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15
T 02 2128 2000
515 Seongsan-dong,
Mapo-gu, Seoul
www.sisul.or.kr/home_worldcupst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

SEOUL
2010
3*27-5*4